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參與·協力 속에 힘찬 跳躍을…

單大·科·支部행사 러시 봄기운에 각급 同窓會가 活氣를 찾고 있다. 사진 ①農大總會 ②法大신년賀禮會 ③忠南支部 理事會 ④印尼支部 送年會(관련기사 3面)

冠岳春秋

새봄과 더불어

冠岳의 靈峯에 봄의 瑞氣가 돌기 시작한다。봄은 확실히 좋은 季節이다。움츠렸던 모든 것이 활기를 찾아 躍動하는 철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라처럼 4계절이 명확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전이라 하겠다。

天地가 맞얼어붙은 酷寒 속에서 영원히 되살아날 氣味조차 보이지 않던 겨울도 일단 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大地는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푸나무의 움이 트고 새싹이 돋는다。이러한 솟아나는 힘은 시커먼 鐵甲과도 같이 해묵은 나무 껍질도 뚫어헤치고 싹이 트는 기적을 낳는다。

이러한 生命力의 분출은 우리 同窓會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많은 單大(大學院) 동창회에서 새출발과 다짐의 모임을 갖는다。이러한 모임들은 3월 하순의 本同窓會 定期總會를 정점으로 大團圓을 이루게 된다。

봄은 大學에서 社會에로 첫발을 들여놓는 졸업식이며、學問의 길로 들어서는 入學式이 있는 철이다。끝맺음은 다음의 출발이므로 졸업이나 입학이 다 시작이라 할 수 있다。元亨利貞에서 元을 출발점으로 삼는 自然의 理法 그대로가 人間에게서도 행해지는 것이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俗談은 특히 출발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뜻이 배어 있다고 하겠다。邪되며 비뚤어지지 않고 誠實한 출발은 곧 그의 大成을 예견시키는 것이니、師弟間과 交友、學問과 人格 수양에도 다 같이 통하는 原理다。자연의 理法에 따라 자연을 해침 없이、또한 人間사이에서도 더불어 共榮하는 것이야말로 科學을 비롯한 모든 學問의 나아갈 방향이며、그것은 곧 그 사람됨의 誠實함에서 가능한 것이다。東洋古典 중 四書의 하나인 中庸에서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요、성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誠者天之道、誠之者人之道也)」고 한 것과 그대로 통하는 原理라겠다。

봄에는 온갖 꽃이 핀다。봄이 옴을 先等으로 알리는 꽃으로는 梅花를 친다。눈속에 피기에 雪中梅라고도 하며、사람의 節槪에 비유되기도 한다。그래 梅蘭菊竹을 四君子라고하여 詩에 읊고 그림으로 그려 그 德을 기린다。

이런 梅花에 견줄 만한 꽃에 冬柏이 있다。동백은 우리 나라 중부이남 바닷가나 섬에 살고 있고、중국과 일본에도 있는데、일본서는 椿이라 하고、中國서는 海紅花라 한다。湖岩 文一平은 그의 全集에서 李太白詩集 주에 海紅花는 新羅國에서온 것인데 빛깔이 몹시 곱다 하였으며、類書纂要에는 신라의 海紅花는 섣달부터 2월까지 梅花와 同時에 피어 茶梅라고도 한다고 했다。

冬柏은 또 山茶라고도 하고、특별히 꿀이 많아 동백새가 즐겨 찾음으로써 鳥媒花라고도 한다。꽃은 다섯 장의 홑잎으로되어 있는데、붉은 것과 흰 것이 있다。겨울에 피는 것을 冬柏、봄에 피는 것을 春柏이라고 한다。冬柏의 열매는 기름을 짜 머리에도 바르고 燈油로도 쓴다。

金裕貞의 小說 「동백꽃」에는 노란 동백꽃〉이란 말이 나온다。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개동백이라고 하여 이른 봄 나무꾼들의 나뭇짐에 꽂혀 짐으로 운반되는、아직 잎이 피지 않아 맨맨한가지의 아귀마다 노랗게 송글송글 무리져 핀 꽃을 말한다。중부지방에서는 이것을 그냥 동백이라고 하고、그 열매로 짠 기름을 동백 기름이라 하여 여인네들의 머리에 발랐다。개동백나무의 표준어는 생강나무이나、冬柏과는 아주 다른 나무다。그러나 기름이 동백기름과 같이 머릿기름으로 쓰이는 바람에 동백이란 이름으로 불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중부 지방에서는 동백을 玩賞用으로 花盆에 가꾸는데、습도와 온도가 안 맞으면、꽃망울이 맺혔다가도 시들시들 떨어져 버린다。

봄의 華奢한 傳令使 동백의 우아하고도 꾀까다로운 성격은 선비의 그것과도 통하는 바 있다 하겠다。

봄소식에 同窓활동 기지개

定總·賀禮會등 잇따라 열려

忠南支部 모교發展基金 出捐 즉석 決議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1월8일 오후3시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년교례회 및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沈鍾燮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올해에도 아름다운 모임을 계속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沈회장은 또 『우리 동문들이 우리나라의 農業·農學 발전을 위해 요즘에도 과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때』라고 한뒤 『모교와 동창회가 일체가돼서 앞으로 닥쳐올 農産物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본회 崔主鎬회장은 『작금의 우리나라 농업실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개탄한뒤 『이제야 말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동문들이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90년12월31일까지의 동창회 收支결산동간 보고를 들은후 2월말정식 決算에 대한 처리는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어 교례의 시간을가지며 선후배간 격의없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文理大 政治學科동창회는 지난달 15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동문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91년도 정기총회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임 金相廈회장의 후임으로 具平會(51년卒·럭키금성상사會長) 동문을 선임하고 부회장에 金建·金永國·申동호·동문을 유임시키고 高建홍문을 新任했다。

또 지난 12·27개각으로 국무총리에 취임한盧在鳳(57년卒) 동문을 비롯해 유공동문에 대해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法大 동창회(회장 金性洙)는 지난 1월17일 프라자호텔에서 91년도新年人事會를 개최했다。

趙完圭총장을 비롯해 총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金性洙회장은 『새해를 맞아 더욱 동문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다지고, 동창회의 조직을 강화, 활성화해 全法大人의 참여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모교지원사업인 장학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동문 18명에게 각종 패증정을 거행했다。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李堯榮(49년 법대卒) 동문을 비롯해 7명에게 紀念牌를 증정했으며, 한국법학원장으로 취임한 文仁龜(50년 법대卒) 동문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金德桂(56년 법대卒) 동문 등 9명에게 祝賀牌를 증정했다。또 특별장학기금을 출연한 劉鍾海(54년 법대卒) 동문에게는 奬學牌가 수여되었고 金奎林(73년 법대卒)동문은 感謝牌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申泰煥교수를 비롯한 8명의 모교퇴직원로교수들과 연고장학금 출연자 30명이 함께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더했다。퇴직교수들에게는 은수저 2벌씩이 사은품으로 증정됐다。

▲新聞大學院동창회(회장 李根洙)는 지난 1월10일 힐튼호텔 설악산룸에서 新年賀禮會를 개최했다。

모교 朴有鳳교수를 비롯,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東海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李根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 상호간에 유대를 더욱 돈독히하고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農大 동창회 忠南支部(회장 吳熙弼)는 지난달11일 大田중앙관광호텔에서 제2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90년도 결산승인과 91년도 사업계획·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를 장학금및 동창회기금 조성의 해로 정하고 동창회의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다。

충남지부는 이미 지난해말로 2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이의 배가에 정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할 것과 연내에 회원명부를 작성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모교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키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 1년동안 新聞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基中·柳昌夏·黃斗奭·趙盛謙·蔡白·朴承寬·金光洙·金暨桂동문등 8명에게 기념패 전달도 있었다。

◇ 文理大 政治學科 동창회 총회 광경

印尼서도 「서울大人」한자리에

1백여명 참석, 親睦 友誼 나눠

본회 인도네시아支部(회장 申明植)는 지난해 12월20일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힐튼호텔에서송년모임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申明植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날 재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金在春(56년 法大卒) ▲회장:申明植(64년 文理大卒) ▲부회장:鄭武雄(64년 商大卒)·申春浩(65년 法大卒)。

인도네시아支部는 현재 백여명의 동문이 똘똘뭉쳐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이날 모임에는 가족 동반으로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만찬에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金海植(77년工大卒)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흥겨운 여흥과 푸짐한 상품이 곁들여져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좀더 많은 모임을 가지면서 동문들간에 서로 돕고 이끌어 줌으로써 하시는 일이 더욱 발전하길 빌며, 가정에도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명예회장인 金在春대사는 『우리 동문들이 한국인 사회에서는물론 현지사회에서 모범적인 인물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자』고 부탁하였다。

인도네시아지부는 회원은 그리 많지 않으나 지난해엔 3회의 골프시합과 귀국하는 동문들에게 기념패를, 그리고 새 입회원이 들어오면 환영회를 베푸는등 동문 상호간친목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言論人·史學者 千寬宇동문別世

言論人이며 史學者인 千寬宇(49년 文理大卒) 동문이 지난 1월15일 오후 3시50분 서울大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 67세。

忠北 堤川 출신인 千동문은 51년 언론계에 투신, 朝鮮·東亞日報 편집국장, 한국일보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千동문은 史學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저서로는 『한국사의 재발견』 『고조선사』 『삼한사연구』 『근세조선사 연구』 『言論史官』 『썰물 밀물』 등 역저를 남겼다。

금년總會 3월23일(土)

午後 2時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창회 1991년도 定期總會가 오는 3월23일(土) 오후 2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90년도 결산서의 주요 골자는 지난 한해동안 명부발간주입 3억4천, 동창회 수입봉투및 제반 경비의 긴축 절약으로 1억9천등 총 5억3천만원을 남기게 되어 89년도 이월금 2억8천과 함께 총 8억1천여만원을 91년도에 넘기게 됐다。이에따라 동창회의 숙원사업이었던 10억 장학기금이 금년에 조성될 전망이다。

걸프戰爭 바로보자

時論

후세인 아랍民族主義에 정치생명

脫冷戰시대의 새秩序 개편위한 試金石 의미

徐 在 万

〈63년 文理大卒·外大교수 韓國中東學會 회장〉

「사막의 무법자」 사담·후세인은,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무모한 戰爭을 유발하여 대결구조의 승산없는 주역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開戰 초기 압도적인 승전보로 속전속결에 부풀었던 미국의 기대감을 비관으로 몰고 감으로써 또다시 세계를 놀람과 깊은 우려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빗나가는 예측은 곧이 손자병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상대를 잘 알지 못한데에서 기인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후세인의 대 쿠웨이트 무력침공과 합병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응징되어야 할 일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후세인의 敗北는 사필귀정이며, 남은 것은 오직 시간문제일뿐이는 불을 보는 듯 하다. 오히려 세계적 여론에 향배한 그의 결전을 보며 차라리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태를 善과 惡의 양분법으로 보아서는 무리일듯 싶다. 현실과 희망사항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그에 대한 비난과 질타, 그리고 무력 응징만으로 사태가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아랍인의 情緖를 헤아리지 않은 힘에 의한 서방인의 논리의 강요는 제2, 제3의 아랍만 전쟁을 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세상의 모든 분노덩하고 배격되어야 할 범죄가 결코 무성한 비난과 질타, 그리고 강제적 제재만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중동에는, 서방인의 눈에 「사막의 히틀러」이며 「아랍민족주의 광신도」인 후세인은 수욕소나 정신병원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때에도, 한 둘이 아니라 무리무리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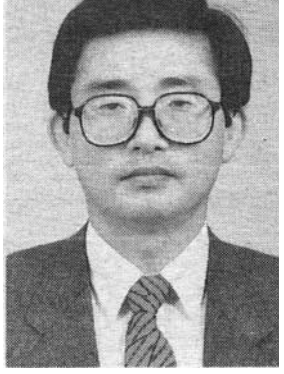
멀리 모사데크와 낫세르에서 벤벨라며 부메디엔, 최근에는 아라파트, 아사드, 가다피, 호메이니 등에 이르기까지 중동 각국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서방인의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서방의 무법자가 아랍인의 民族的 지도자로, 서방인의 영웅이 아랍인의 반민족적 적도 피수로 전도되는 아이러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시의 「지켜져야 할 국제질서」가 후세인의 「청산되어야 할 낡은 질서」로 낡아 있는 한, 평화의 여신은 영원히 중동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부시의 「지켜져야 할 국제질서」와 후세인의 「청산되어야 할 낡은 질서」는 근본부터 서로 다른 시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즉 부시는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쿠웨이트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현시점의 질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세인은 이 질서를 서방 제국주의 지배시대의 유물로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걸프전쟁은 「新思考」에 의한 탈냉전시대의 새질서 개편을 위한 시금석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즉 제2차 세계대전후 植民主義의 퇴조로 아랍민족주의의 한 목표인 독립은 이룩하였으나 냉전구조로 인하여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통합이라는 또하나의 목표를 탈냉전시대의 뮤지방을 넘기전에 이룩함으로써 개편된 중동의 새질서로서 세계적 새질서에 등단하겠다는 사담·후세인의 모험주의적 망상에 대해, 단극체제(uni-polar system)시대의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질서 구축으로 「신사고적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부시의 강력한 일변백계적 응징 의지의 확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교류의 門戶를 개방하여 진정한 상호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지 아니하고는 이른바 「신사고」에 의한 공존공영의 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서방인들이 지상의 가치로 부르짖는 민주화를 비단 정치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총체적 민주화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적 공존만이 정서의 충돌을 피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후세인 모험의 전모를 헤아릴 길 없으나, 근명된 셈이다. 더구나 兵器의 압도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전을 강행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정신적 무장이며 범이슬람주의와 아랍민족주의에 호소한 長期戰, 擴戰일 수 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후세인의 長期戰, 擴戰 전략을 무력화 시킬 속전속결이다. 개전 초기 미국언론의 압도로 혼란된 시각도 이제 냉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어느 정도의 擴戰과 長期戰으로 후세인의 모험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원상 회복」이란는 부시의 목표는 지상전을 필수로 하며, 이는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가전과 장기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또 1백 70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던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던 쿠웨이트가 유전마저 상실한 폐허와 공화제 요구에 밀린 허약한 「사바왕정」에 의해 어떻게 지탱될 것인가도 나관적이지 못한 대목이다. 더욱이 유목민의 피를 받은 아랍인들이 비정규전에 강한 특성과 정신무장을 무기로 정규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끊임없는 위협적 존재로 남게 될 것을 상정한다면 전후에도 계속될지도 모르는 쿠웨이트 주둔 다국적군과의 충돌도 새 변수로 가산되어야할 것이다. 무력화된 이라크에 뒤틀이은 시리아의 아사드, 이집트의 무바라크, 리비아의 가다피등의 부상과 이들을 위시한 새질서도 고려되어야할 일이다.

다수국가로 分裂된 아랍제국간의 교차하고 상충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언제나 이들을 대하는 여타 국가들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어 왔다. 분단국으로서의 특수한 사정에 있는 한국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지난날의 愚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역선전과 모험주의적 도발도 경계의 대상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중동은 4반세기를 상회하는장기간 우리가 수많은 인력과 물력, 재정력을 동원하여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온 지역이다. 이제 우리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國益保護的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싶다. 작금의 우루과이 라운드며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미국의 처사를 떠올리면서, 戰後 미국의 단극체제 하의 새에너지수급질서가 우리에게 안겨줄 영향력을 상정해보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일까.



李 漢 久

〈69년 商大卒·大宇 經濟硏究所 소장〉

政治

단기전 物價, 장기전땐 不景氣 대책 세워야

持續기간이 최대 變數로 작용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5개월 이상 끌어오던 페르시아만사태가 드디어 전쟁으로까지 진행되고 말았다. 페만사태의 發生動機는 경제적으로 볼 때 OPEC내부의 석유가격정책에 관한 對立에서비롯됐고, 정치적으로는 아랍민족주의 및 共和主義者들이 親西方 王政支持者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라 보여 진다. 한편 지난 몇개월간의 油價上昇은 과거 제1차 및 제2차 석유파동 때와는 달리 산유국들의 寡占力行使에 의한게 아니라 주요 소비국들이 정치적, 군사적이유로 이라크를 制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축물량을 조절하지 않음으로써 석유major들의 油價조작이 가능토록 여건이 조성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전쟁기간동 또는그 후 油價는 어떻게 움직일까? 油價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너무도 많다.

첫째는 전쟁중 및 그 후의 中東地域狀況이 매우 중요하다. 精油시설과 油田의 파괴정도 및 복구속도는 어떤가, 함만시설의 利用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전쟁기간동 민간인들의 殺傷정도, 이스라엘이 參戰해서 이란과 시리아등을 자극할 것인가, 多國籍軍이 이라크內까지 진출해서 후세인을 除去할 것인가, 그 후 이라크의 지배자로서 親西方人物이 등장할 수 있는가, 美軍이 주둔할 것인가, 전후 중동지역의 세력판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등에 따라서 中東地域의 安定性여부가 결정되고 石油의 안정적 供給이 이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둘째는 戰後 OPEC국가들끼리 생산 quota조정에 성공할 것인가,

셋째는 미국의 경기후퇴와 금융시장不安으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둔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서 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인가.

넷째는 省energy기술, 원자력발전, 他油田탐사의 성공, 선진국들의 석유비축정도 등도 중요하고, 석유先物시장의 움직임도 油價의 安定性에 영향을 준다.

이상과 같이 수많은 변수를 갖고 油價수준을 展望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인가의 與否에 따라서 금년도 油價를 U$35~U$15의 간격으로 보는데 큰 異議를 제기하지 않는 듯 하다.

油價가 上昇할 때 미친은 국민경제적 영향은 환율변화, 임금조정, 정부의 정책대응方向과 정책채택時期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을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또 石油價와 주요 價格변동間에는 time-lag가 제각각이다. 물론 세계경제상황과 우리경제체질의 强弱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영향은 持續期間에 대한 예상에 크게 의존한다는 點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만일 短期戰이라고 예상한다면 家計는 소비, 企業은 生産活動을 조정하기보다는 先價格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자면 경제주체들은 資金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金利上昇은 불가피하다. 또 석유수요가 계속되면 국민경제전체적으로 볼때 석유수입은 늘어나서(가격인상폭에 가까운만큼) 국제수지에 부담을 가져온다. 또 석유에 직결되는 산업이나 부문이 특히 價格引上을 先導할 가능성이 크다.

反面에 애초부터 長期戰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경제주체들은 재고조정보다는 소비와 생산규모자체를 줄이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投資를 취소할 것이다. 많은 産業에 거의 短期戰전망이 틀려서 장기간 계속된다는데도 계속 단기전을거라고 전망하면서 행동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될 때 同時的으로 파급되면서 조금時間이 지나면 本格的 경기위축을 느낄 것이다. 기업들은 에너지절약형 기술도입과 산업구조조정, 원유導入先전환을 本格化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만일 短期戰에 확신을 가지면 物價對策(예:토목공사移延)을 重視하고, 장기전이라면 고용대책, 不景氣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일 나쁜상황이라면 多國籍軍에의 참여정도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군사적·정치적관점에서도 고려가 되어야겠으나 경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重視되어야 한다.

첫째, 長期戰으로 갈 경우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介入한다는것은 戰爭의 성공가능성 夾元뿐 아니라 戰後 아랍의 지배세력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번전쟁이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한다는 경제적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中東에서 이라크를 去勢한다고 OPEC의 공급로절行態가 변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勝戰으로 보는 석유소비국이 특별히 有利해질 이유는 없다. 설사 親西方정권이 등장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長期的으로 독과점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利益을 제쳐두고 소비국에게 有利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냉정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友邦이라는 개념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産油國들이 完全경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소비국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中間배급자 역할을 하는 석유major들이나 정보를 독점하는 trader들이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면 OPEC의 공급독점상태와 크게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이다.

넷째, 産油國들이나 석유major들의 횡포를 막는 방법은 따로 있다. 油田개발, 代替에너지개발, 省energy 기술개선등 석유수요측면에서의 合理化로 석유시장內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게 보다근본적인 접근方法이다. 다만, 공급사정의 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次元의 대책마련(예:석유비축, 선물시장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짜점심을 먹고 다니는 것은 떳떳하지가 않다. 그러나 세계적 지도자들이 어차피 차려놓을 수 밖에 없는 잔치상에서 조금 얻어먹고는 남보다 훨씬 많은 털을 뿌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경우도 현명하지 않다. 돈은 없어졌지만 힘은 남아 있는사람앞에 힘없으면서 돈자랑한 결과로서 不當한 압력이 增大되고 있음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뉴욕州立大 工學박사, 父親 兄弟등 일가 5명이 서울大人

國內 최초 乘用車엔진개발

人物

現代자동차 李賢淳 동문

自動車기술자립 새 地平 열어

로열티 節減외 年 1백억 輸入對替 효과

關聯 産業분야에 큰 波及전망

6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동차공업이 출범한 이후 30년만에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계된 고유모델의 자동차엔진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現代자동차가 독자적인 설계에 의해 배기량 1천5백cc급 승용차용 가솔린엔진 2개기종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의 주역을 서울大 동문이 맡아 모교의 명예를 떨쳤다. 그 주역이 현대자동차 蔚北연구소의 李賢淳(73년 工大卒·현대자동차 이사·엔진개발담당) 동문. 이외에도 李大雲(72년 工大卒) 徐楨賢(72년 工大卒) 동문등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다수가 모교출신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자립 元年」을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 제정된 張英實賞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과학기술처·한국과학재단등이 「첨단기술을 제품에 응용,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시상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첫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이 개발의 핵심역할을 맡아 활약한 李賢淳동문은 『이번 개발이 미국·일본·유럽등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세계 9번째의 자동차엔진 독자개발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게끔 했다』고 말하면서 『내구시험 도중 개당 제작비가 2천만원이나 하는 시험용엔진이 11개나 깨지는 고통스런 나날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李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뉴욕州立大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GM에 근무하던중 84년도에 現代가 蔚北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스카우트 됐는데, 李동문은 이때 비로소 『조국을 위해 무언가 할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고 한다.

한편 李동문의 가족을 살펴보면 사촌 홍미롭다. 우선 부친(李慶煥)이 工大(42년卒·前 Life주택 고문)를 나온 것을 비롯, 형님(李範淳)도 71년 공대 금속과를 졸업하고 日帝시대에 일본인에게 억눌려 지내면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배움을 통해 얻어서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유난히 자식들의 공부에 대해 엄격하셨단 면서 자녀들의 유학문제등도 직접 간여하시곤 했다고 한다. 서울로 박이인 이들 동문가족은 부친을 비롯한 온가족이 민동공민학교부터 동문이라는 기록도가 지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사는 요즘도 매주 토요일이면 한자리에 모일만큼 우애가 돈독하다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李동문은 변속기개발을 주로 담당했는데, 자동변속기의 독자설계는 국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할수 있는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업계는 독자모델의 승용차를 미국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면서도 승용차의 핵심부분인 엔진과 변속기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 설계도면을 갖고 부품을 국산화해서 국내생산을 해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엔진의 경우 대당 5~6만원의 로열티를 지출해 왔는데, 이번 개발로 인해 앞으로는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기종의 독자개발도 코앞에 다가오게 됐다. 또한 이번 개발로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보게됐다.

이번 개발된 알파엔진은 세부설계·실험시험·新車테스트를 거쳐 5년6개월만에 개발됐고, 변속기는 86년11월 설계를 시작한지 3년10개월만에 시험을 끝냈다.

李동문은 『이번 프로젝트에만 1천억원이란 자금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얻어질 결과를 놓고 볼때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단들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으나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제품을 생산할때도 응용될 수 있을뿐 아니라 엔진의 개발 및 대량생산 과정에서도 해당 산업분야가 큰 파급효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동문에 의하면 84년 설계를 시작할 당시 자체설계능력 부족으로 인한 설계실수등으로 양산도면 배포전의 설계변경만 3백여건에 이를만큼 난관의연속이었다고 한다. 한편 엔진의 내구시험을 위해 83대의 엔진으로 2만1천시간을 운행했는데, 이를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1백5바퀴 도는 거리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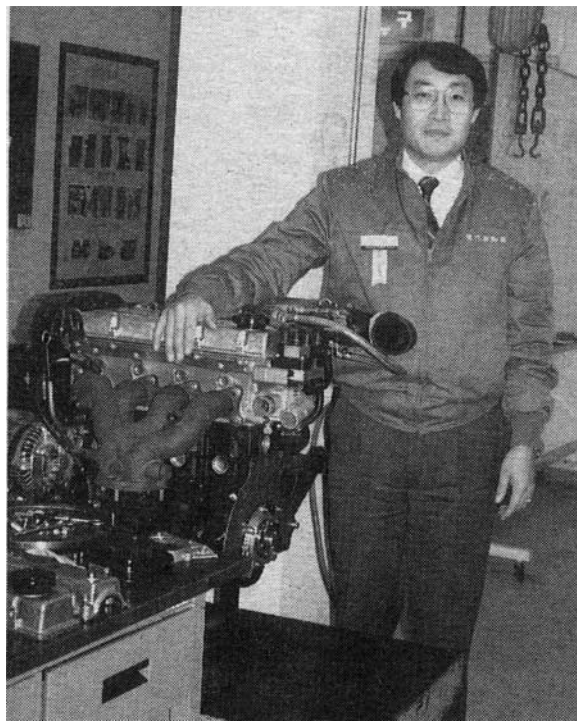
앞으로 2천내지 3천cc급엔진 개발을 통해 95년도까지는 전차종의 국산엔진화를 꾀할것이라는 李동문은 현재 모교에 연5억의 규모로 연구용역을 준 수소엔진 자동차개발에 대해서도 귀뜸했다. 이는 곧 물로가는 자동차의 개념으로 연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무공해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연구라고 하는데, 조만간 이 연구에도 참여하게 될것같다고 한다.

한편 李동문은 국내 최고수준이라는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가서 이름만 듣던 실험기구를 접하고 보니 운용법조차 몰라 당황했었다며 국내 공과대학의 실험설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는 대당 2천만원짜리 실험용엔진 2대를 모교에 기증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교 姜信榮교수와 동기동창이라는 李동문은 재학중 李澤植교수(현재 명예교수)님의 엄하면서도 자상했던 인상이 깊게 남아있다고 한다.

현재 5백여명이 근무하고있는 이곳 蔚北연구소에만 60여명의 동문이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趙麟壽(68년工大卒·이사) 동문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했다. 社內에서도해 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은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이들은 기금적립을 통해 보다 폭넓은 동문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부인 郭聖珠씨와의 사이에아들 둘을 두고 있는 李동문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준 모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결국 서울大人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면서 말을 마쳤다.



◇ 새로 개발한 알파엔진 옆에서.

〈K〉

옛 스승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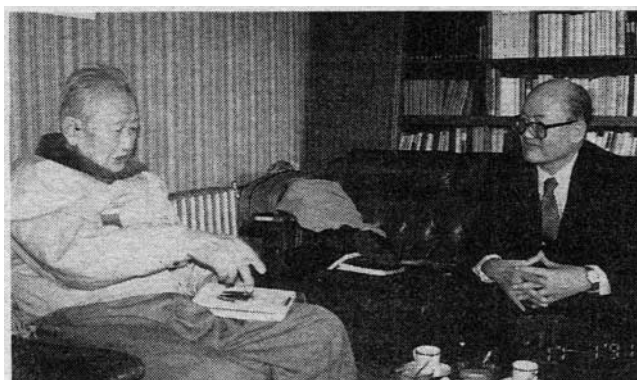
英文학자 蔡官錫선생님

—글·金 東晟
〈49년 師大卒·KBS交響樂團 총감독〉

⊙… 스승 蔡官錫교수는 京城帝大 예과 1회 출신으로 해방이후 모교에서 後學을 지도하며 師大학장을 역임했다. …⊙
⊙… 제자 金東晟씨는 49년 師大를 졸업하고 모교 교수, 公報部장관, 駐아르헨티나大使등을 지내고 지난해 明知대학교를 정년퇴임했으며,현재는 KBS교향악단 총감독을 맡아보면서 왕성한 詩作활동도 펼치고 있다. ……【編輯者 註】…⊙

蔡官錫(29년 京城帝大卒·前母校師大교수) 선생님을 한 이태전뵌 이후 안그래도 선생님의 안부가 궁금하던차 마침 同窓會의 제안이 들어와 새해 인사도올릴겸해서 선생님댁을찾은 것이 1월17일, 꽤 르시아만의 開戰으로 세상이 시끄럽던 날이였다. 북한산 어귀의 주택가에 위치한 선생님댁으로 향하면서 나자신 옛그제 정년퇴임을 했다는 생각이 미치자 유수와 같은 시간의흐름에 새삼 감회가 깊었다.

『퇴임하고 음악관계일을 맡았다구?』 첫말씀에 나는 어리벙벙했다. 자주 찾아 뵈지도 못하는 제자의 근황까지 파악하고 계신데대한 고마움 때문이였다. 기실 이번에 맡은일(KBS교향악단 총감독)은 나 스스로에게 있어 음악에 대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神의 은총으로 생각될 만큼 애착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제생각같아서는 퇴임후 아이들이나 모아놓고 피아노 교습이나 할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자리를 얻게되어 얼마나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십십륜이가 아니지, 김선생은 옛날 수학하던시절부터 음악에 남달른 열정과 소양을 갖고그 간인가 근부하고 있었는데 玄相充선생(玄선생님은 45년 9월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에 속해 서울대학교의 창건작업을 하셨다)이 전국의 수재가 모인 서울대학교 예과에 와서 일을 봐달라고 했어. 玄선생께서는 「구로다」라고 하는 日人 예과부장으로부터 인계를 받으셔야 했는데,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야. 나는 경성帝大시절 그선생께 독일어를 배웠던터라 어떻게 제자가 그럴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玄선생 말씀이 「사제간의 정이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분도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가야 할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가 이 만큼 자라서 자신의자리를 이어받게 됐으니 흐뭇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구로다」 선생이 날 알아보고 반가워하시면서 玄선생과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거야.


◇ 옛시절을 회상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는 스승 蔡官錫 선생(左)과 제자 金東晟동문。

試驗잘쳐도 出席 안좋으면 「F학점」
留學주선등 우리夫婦에 각별한 恩寵
晩年엔 東洋古典 심취, 老子 莊子 佛經 섭렵

당시를 회상하시던선생님께서 불현듯 『참, 千寬宇가 죽었어』 하시는데, 안면에 만감이교차하시는 듯 했다. 선생님이 부임하실 당시는 國大案反對로 좌우익이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좌익에는 함흥출신 李모라는 학생이 선봉에 섰고, 우익에는 千寬宇(49년 文理大卒)가 앞장섰었다. 千兄은 체구가 당당하고 의협심도 한 불같던 차에 좌익계 학생들을 모조리교실에 갇두어 버린적도 있었다. 그때 蔡선생님 등은 이들에게 『우리서울대학교가 이렇듯 몰락다. 해방후에 이나라를 이끌어갈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두가 있느냐』고 호통을 치시곤 하셨단다.

당시를 회상하니 선생님께서는 철저하게분명한 자세로써 매사를 처리하셨다는 생각이떠올랐다. 내가 겪은 일은혜에 보답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 內子(權眞淑·師大 가정교육과)에게도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바 있다. 내자는 나와 동기생인데, 유학생선발당시 蔡선생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유학생 제1호가 되었고지금도 내자는 그때일을 두고 두고 감사해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올렸더니 선생님께서는 「허헌」옷으시면서 당시를 떠올리셨다. 24년전에정년퇴임하시고 90을 눈앞에 두신 노스승과마주앉아 담소하노라니오히려 더욱 생생하게지난날을 회상하시는 선생님의 기억력에 새삼 머리가 숙여졌다.

2년전에 皮千得선생님과 함께 모셨을 때 蔡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척이나 인상깊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직후 지금까지가 평생에서 가장좋은 세월이었어』 하시면서 그 기간동안에 漢詩 6천여수를 읽었다고 하셨다. 그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최근 출간한 「프로스트名詩해설집」을드렸다. 『아마 전에도 한번 金선생이 프로스트詩를 번역했었지. 그때도 읽어 보았는데 번역이 참 좋았지』라고 하시면서 詩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선생님은평소에도 시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력이 저하돼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신다.

퇴임후 선생님은 皮千得·朴忠集·李鍾洙선생님과 함께 15년여를 한달에 두어번씩 모여 시를 읽는 모임을 가지셨다고 한다. 『거기서도 주로 내가 한시를 댔는데, 그게 재미있다고 나보고만 쓰라고 하더군. 특히 李鍾洙선생이 자주 써달라고 했는데 폭지에도써주고 신문지 귀퉁이에도 써주면서 갖다가는 버리겠지 했는데 한번은 집에 가보니 그걸 그대로 스크랩해 두었더라고. 그러면서 「읽어도 돌아서니 모르겠단」고 하던때가 엊그제같은데 이제 만날수가없게됐어』 하시면서 쓸쓸하게 미소지으신다.

선생님은 평생을 영문학자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晩年에는 동양고전에 심취, 노자·장자등 이외에도 불경을 비롯한 고전을 섭렵하셨다고 하신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국내에는 쓸만한 해석서 하나 없어 그저 느낌으로 받아들일 뿐인데 그것도 참 좋아. 2~3년전부터는 「周易」을 읽고 있는데 영어로는 「Book of Change」가 되겠지. 말 그대로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아닐까 싶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보면 죽어간다는 말과 일치하는것 같아. 읽으면서도 주역은 역시 어렵다는 것을 느껴』라고 말하시는 선생님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주역에 관한 서적을 10여종 읽었으나 심오한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놓은 책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하셨다.

"極端피하고 中庸 지키려 할 때 社會발전"力說

『이책에서 건듭 강조하는 말씀이 中庸인데, 그래 중용이란 책을 읽게됐지. 읽으면서 느낀점은 수학적인 중간위치가 중용이라고할 수 없다는 것이야. 무릇 중용은 유동적이고, 초월적인것 곧 형이상학적이라고나 할까. 맹자에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와 극단적 박애주의를 대비한 연후에 막여라는 제자가 꼭중간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맹자는 「그것도 아니다. 본시 중용이란 時處·位에 순응하여 적합하게 행동하는것」이라고 했지. 요즈음 세태를 보면서 느끼는것은 종교건 사회건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지키려할 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수 있을것 같아』

노스승의 달관한 듯한 강의(?)에 새삼 접하면서 나이를 초월해 고고한 학자정신으로 결집된 선생님의지나온 궤적을 아련하게 나마 더듬어 보았다.

공연히 바쁜 일상에 얽매여 총총 인사를올리고 돌아서는 제자에게 『커피도 있고, 맥주도 준비돼 있으니 자주 와서 이야기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이돌아오는 차안에서도 내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母校 研究所 실태

自然계열

企劃取材 〈4〉

應用科學에 밀려 基礎분야 死角지대

懷姙기간 길고 成果늦어 産業体서 외면

大學은 기초과학의 本山이다。그러나 산업화를 전제로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을 놓고 볼때 산업적 응용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인식돼온 기초과학연구가 대학내에서조차 합당한 자리매김을 받아오지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과학은 응용과학에대응하는 개념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분야가 극도로 취약하다。그렇두 박에 없는 것이 그간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응용과학 분야의 노하우를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해왔다。그러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자립할만 하여 창조적인 연구분야의 필요성을 인식, 외국과 손을 잡으려하나 이미 경쟁상태에 돌입한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완강한 저항과 압력」뿐이었다。

기초과학은 회임기간이길고 실제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원사리 눈에 띄지않는다는 점때문에 배고픈사람이 영양가를 따지기 보다는 양적으로 충만하려고 서두르듯 지금까지의 우리 산업계는 성장위주의 실적에만 급급해 응용과학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모교는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돼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직접 설립을 꾸릴 수 있는 연구소의 숫자가 제한됨주밖에 없다。따라서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욕구를 충분히 뒷받침하려면 외부의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을 보는 시각이 학계와 산업계 사이에 사뭇 차이가 있어 이것도 요원하기만 하다。여기에과학기술행정과 재원 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모교의 自然계열연구소로는 자연과학종합연구소(소장 李仁圭교수·식물학) 유전공학연구소(소장 姜炫三교수·미생물학)와 이론물리학연구센터(소장 宋熙星교수·물리학)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소장 河永七교수·미생물학)등이 있고 자연대 안에 수학·통계·분자과학·광물·미생물·해양연구소(최근 대학부설 法定化)등이 있다。

이들중 자연과학종합연구소는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과학 학술조성비에 의거, 기초과학 각분야의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있다。정부는 얼마전부터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전제작업으로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89년말 과기처·문교부 공동발의로 마련하고 시행령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대학에서 기초과학연구를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법률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향후 이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는데 이의 정책적 실현과정에서얼마만큼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가 변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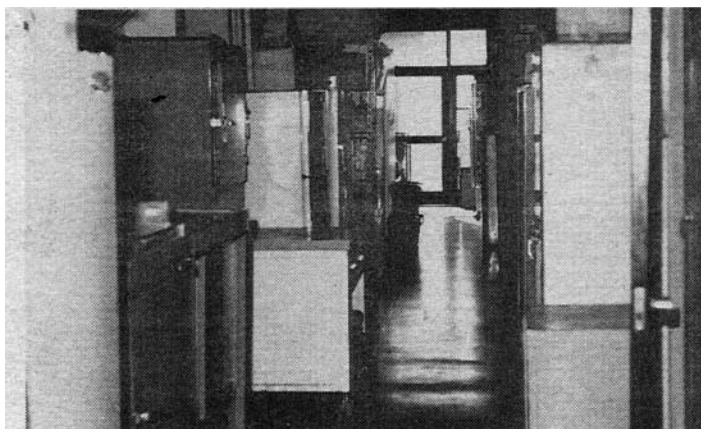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과학재단(이사장 姜洪烈·52년 工大卒)에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연구 발전과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제수준의 우수연구센터를 육성한다』는 기치로 우수연구센터 육성계획을내놓으면서 기초과학분야에도 의 지원을 받아 수준높은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됐다。SRC가 대학부설 연구소와 다른점으로는 그 성격상 연구전문기관이라는 점 이외에도 자체재원이나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재단의 정책적 지원 아래 연구분야에 전념할 수 있다는것이다。또 타대학의 연구인력이 필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연구영역에 따라 지역거점화도 의 제도화및 외국인 초빙교수제도 등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기초과학은 모든 자연현상을 first principle에서 출발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까닭에 어느 나라도 이분야의 발전 없이는 과학선진국이 될 수 없다。한편 기초과학은 우수한 인적자원만 확보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학문과 과학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놓고 볼때)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용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8년말 모교에 설치된 「기초과학 전국공동기기센터」(소장 梁喆學교수)가 그 존재가치나 효용가치면에서주목을 끌고 있다。여기서는 전국 대학의 기초과학연구활성화를 위해 고가정밀기기를 구입·유지 관리하고 동 기기를 이용한 공동연구 지원과 측정·분석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이에 따라 6백만불에이르는 OECF차관을 확보, 기기 일부가 이미 통관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안으로는 모든 기기를 완비할 예정에 있다。또한 1천여평의 대지도 확보, 내년 초순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전에 없이 모교의 자연계열연구소에 활성화바람이 불고는 있으나아직도 응용과학분야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미치못한 아니라 대다수 연구소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고있는 형편이다。그간 자연계열 연구소들이 획기하던공동기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어느 정도 연구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이에 수반하여 전임연구원의 확보라든지 연구소간 교수의 교류연구, 연구전담무제,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



◇ 자연계열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 기자재의 70%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지적이 기초과학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사진은 모교 자연大 복도에 들어선 기자재들。

器資材 70% 無用之物…共同器機센터 가동에 한가닥 기대

는 특성이 있다。

모교의 경우 타대학에비해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 또한 국내에서 가장우수한 집단에 속하고 있어 그간의 연구실적이 국내학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의연구행태가 다분히 지엽적이고 폐쇄적인 가운데 영세성을 면치못한 상태에서이루어졌다는 데서 이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발전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기능을 너무 교육에만 우선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우리의기초과학이 후진성을 면치못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대학은 연구하는 곳」이라는 사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박사급 연구인력의 80%가 대학에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창의적 연구여건 조성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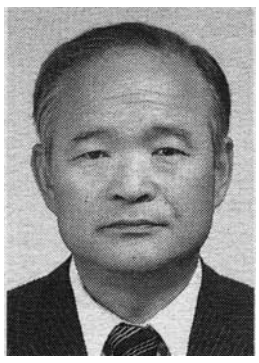
이러한 때에 지난해 12월 모교에서 열린 「산학협동 대토론회」의 내용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단을 잘 표출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건이 좋다는 서울대의 경우 교수 한사람당학생수가 전체 평균 21명인데 반해 이공계의 경우 30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같은 현실에서 과학기술주도란 허구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공계 교수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학위과정의 대학원생과 교수로 이루어진 팀을 짜, 산업계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하는 인턴제의 도입』을제시하고 있다。한편 『교수 한사람이 30명 이상의 학생을 3~4개 과목에 걸쳐 가르쳐야 하고, 대학의 실험기자재가 시대에 뒤떨어져 70%이상이 쓸모없는 것들로 들어차 있다』는지적들을 닿국과 나아가서는 사회전반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工科계열 연구소〕

教育當局의 책임

名譽教授 칼럼



鄭然泰
〈前 師大교수〉

86년도에 실시되었던 제2차 國際學力 비교는 IEA(國際成就度評價協會)에서 주관하였으며, 26개국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中央敎育評價院이 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報告書도 마련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교 학생의 과학 학력은 상위권인데 비해서 중학생의 학력은 중위권으로 고교생의 학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밝혀졌다.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은 우리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학력을 國際比較하는 목적이 국가간에 等級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要因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많은 액수의 國庫를 써서 얻은 자료와 발견한 사실들을 수록한 보고서는 국내의 관계기관이나 인사들에 돌리지 않았으며, 고교생의 데이터는 외국에도 배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日刊紙에 몇 번 記事化가 되었지만 그 뒤는 일반의 관심에서도 잊혀졌다.

90년도 세계 數學올림피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올림피아드를 거쳐서 참가자를 선발하였고, 이들에게는 겨울학교 등을 통하여 특별지도까지 한 뒤 참가시켰는데도 우리 고교생의 성적은 최하위인 32위였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中共이 1위, 북한은 16위였다고 하는 데 이런 사실도 몇 차례 신문에 보도되었을 뿐 일반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

平準化시책 執着, 英才교육 외면

중·고생 科學學力 갈수록 떨어져

학력에서 國際比較한 둘주는 체육선수가 어느 國際試合에서 몇등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경기에서 얻은 선수의 성적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가령 여떤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金메달을 땄다고 하여도 무엇이 대단하다는 말인가! 그러나 과학학력에 관한 조사에서 얻은 성적은, 각국에서 無選으로 표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얻은 것이므로 이 비교는 전체학생의 학력을 비교한것이 된다. 數學의 경우는 각국에서 최상위급 학생을 출전시켰으므로 대표선수들의 학력을 비교한 것이 된다.

10년, 20년후 국가와 민족의 運命을 책임지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해야 할 오늘의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뒤지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에대하여 敎育當局은 책임을 지고 어떤 對策을 마련하였는가! 이런 사실들에 관한 심각한 論議가공개되면 교육 담당자의 입장이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사실 자체를은폐하고, 시간이 흘러일반이 잊으면 그만이라고 행동한다. 그들에게는 장래에 져야 할 責任은 하나도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와 대조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國際比較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우리와 같이 뒤지는 것을 그들은 國家的인 위기로 간주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Nation at Risk).

다른 경주로, 탁월한 재능을 어려서 나타낸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敎育當局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프린스톤大學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全君을 알아보자. 그는 어려서神童이라 일컬어져서 취학전에 국교과정을 모두 스스로 공부해 마쳤다. 그는 1학년에 1년을 다니고 바로 6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으나, 학습내용이모두 아는 것이어서 학습에 흥미를 잃고 休學을 하였다. 9세일때 TOEFLL 시험에서 경이적인 성적인 5백70점을 얻었다. 大田 외국인학교에서는 테스트를 거쳐서 8학년 과정에 편입시켰다. 그학년의 성적이 전과목 A였다는 우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敎育當局이 『退學조치하라』는 지시를 학교장에 시달하였다. 대전 외국인 학교에서는 비록 한국 어린이지만, 그에게 勉學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미국 英才高校에 추천을 하여 크렌브르크高校 11학년 과정에 입학허가와 奬學金을 얻어 주었다. 敎育當局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그는 학교의 배려로 87년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떠날 수 있었다.

한편 6학년생인 申君은 혼자서 고교數學과정을 이수하고 89년에는 국내에서 실시된 數學올림피아드에 응시하였으며, 90년에는 동大會에서 명예상을 받게 되었다. 또 컴퓨터 경시대회에서는 금상을 탔는데 상금과 함께 해외여행 및 科技大 입학시험에서 필답고사면제라는 特典까지 받게 되었다. 본인은 그를91년 하기방학에 실시할 대학 과정의 SMPY 프로그램(죤·호프킨스大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교섭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영재아들에 관한 記事가 때로 보도되고 있지만 敎育當局은 물론 학교도 이들에 대한적절한 교육적 배려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국민인이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받을 權利가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敎育法 4條에 규정하고 있지않는가!

文化部는 음악영재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藝術學校(가칭)를 91년에 설치할 준비를서두르고 있다. 體育部는 유망주에 대해 金메달 획득을 목표로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다. 과학영재 양성을위하여 科技處 산하에특수대학으로 科技大를설치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이르러도, 앞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人力 양성을 책임져야 할 敎育當局은 과연 교육에서 秀越性 추구를 위하여 어떤대책을 강구하여 왔는가! 그들이 하향식 平準化를 하는데만 집념을갖고서 영재아를 교육하여 優秀人力으로 양성하는 데는 안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본인에게는 암담하게만 보여진다.

박물관의 迷路

同門수필

任孝宰
〈65년 文理大卒·母校博物館長〉

한국에 있어서 大學博物館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캠퍼스 한구석에 버려진 유물창고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고대 유적의 발굴조사에 커다란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댐공사건설에 따르는 수많은 유적들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없어질 운명에 놓인 것도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담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못하는 일을 대학박물관이 떠맡아야 하는운명에 놓인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日本이나 中國에서 온 손님은 한국 역사의 서장을 알리는 30만년전의 全谷里출토 구석기 유물 부터 최근 수년간 조사한 ,百濟初期의 夢村土城 출토품이나, 관악산 꼭대기의 한우물 출토품 등 최신 자료가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있는 우리 대학박물관을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도 글을 쓰고 있노라니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벨이 요란하다. 그곳을 다 보았으니 우리쪽으로 온다는 연락이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지 서너시간이 지나도록 온다는 손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교문을 들어선 손님 일행은 교내 곳곳에 표시된 박물관표지판을 따라 체육관 건너편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축박물관 현장으로 간 것이다.

88올림픽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짓기 시작한 것이 보통 건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까다로운 실내장치 때문에 아직 건물의 뼈대만 완성된 형편이다. 이것을 보고 놀란 손님 일행은 교내 곳곳을 방황하다가 겨우 어두컴컴한 도서관의 좁은 복도로 향한 것이었다. 도서관 6층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박물관전시실을 찾는 것은 교내 인사도 수월한 일이 아닐진대, 이곳 저곳을 방황하다가 겨우 전시실 입구를 찾은 모양이다.

실상 1975년 이곳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 까지만 해도 동숭동 시절의 30년간은 그래도 박물관이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단독 건물을 가지고있어서 캠퍼스를 오가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우리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적지 않게 그때 그 시절의 박물관 관람 소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었다.

도서관 6층의 이 구석을 찾느라고 지쳐버린 듯, 기진맥진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여간 미안한 감이 들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역사적 유물이나 그림들의 귀중한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시설 부족으로 그에 대한 대접 또한 여간 소홀한 것에 죄책감을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캠퍼스를 들어서서 순환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웬 대학내에 미사일기지가 있는가』라고 손가락으로 신축박물관 건물을 가리키는 분이 한두명이 아니지만, 그것은 자연광선을 이용한 특수 시설을 갖춘 신축 박물관의 모습이다. 지루하게도 수년간 계속된 공사는 지금까지 85%의 공정을 마치고 이것이 완성되면 적어도 금년말에는 방문자마다 으레(?) 서너시간씩이나 우리 박물관을 찾으려고 헤메는 그런 해프닝은 또다시 볼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安基榮(36년 法大卒·辯護士)‖최근 열린 興士團 공의회 정기총회에서 2년임기의 理事長에 선출.

▲李鍾馨(44년 法大卒·忠南紡績회장)‖日本 오사카(大阪) 현지법인 직원들을 독려하고 해외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1월14일 출국.

▲趙淳(49년 商大卒·前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1월15일부터 3개월간 美國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연구하기 위해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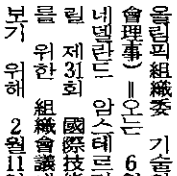
▲李泰極(50년 文理大卒·한국시조작가협회장)‖최근 수필집『저 窓가에 하얀 그림자』와 시조입문서『時調의 이해와 실제』등 2권의 저서를 펴냄.

▲姜漢永(51년 文理大卒·전주우석大名譽敎授)‖최근 3년임기의 국립 창극단 단장으로 임명됨.

▲金致善(51년 法大卒·한국노사발전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미국 노동법연구회 91년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

▲金永憲(52년 師大卒·前梨花女高 교사)‖지난 해말 정부로부터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음.

▲宋三錫(52년 商大卒·모나미 會長·本會理事)‖최근 日



울림피組織委 기술위원장·本會理事)‖오는 6월20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제31회 國際技能競技大會를 위한 組織會議에 議長을 보기 위해 2월11일 출국.

▲金善弘(55년 工大卒·起亞그룹會長·本會副會長)‖12월18일 있은 全州高 재경동창회 총회에서 會長으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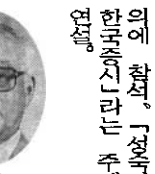
▲金在善(56년 工大卒)‖최근 大林産業㈜ 감사에서 계열사인 三湖 사장으로 승진.

▲安秉禧(56년 文理大卒·母校 人文大 교수)‖1월11일 국립국어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됨. 安동문은 이 연구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의 3대소장으로 재직해왔다.

▲金濬浩(56년 法大卒·코리아나부어旅行社 대표이사·本會理事)‖국제와이즈맨 서울동서지방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최근「한국 21세기와 통일」을 주제로 김학준대통령특보, 박정수외교통일위원장, 이원설 한남대총장을 초청 대회를개최.

▲張忠植(56년 師大卒·檀國大總長·本會理事)‖최근 노동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産業勞使大學院을 설립.

▲高炳佑(56년 商大卒·증권거래소理事長·本會理事)‖1월16~17일 泰國 방콕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보시장회의에 참석, 「성숙기로 가는 한국증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南惠祐(56년 大學院卒·한

법·외교·기술) 모임인 同考會 회장으로 추대됨.

▲兪英一(57년 商大卒·本會理事)‖최근 해태그룹 고문에서 해태상사 사장으로 전임.

▲朴相大(60년 文理大卒·母校 自然大 교수·本會理事)‖최근 열린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장으로 선출.

▲宋東準(60년 文理大卒·母校 人文大 교수)‖최근 열린 한국독어독문학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됨.

▲韓完相(60년 文理大卒·母校 社會大 교수)‖최근 모교교 한국사회학 차기회장으로 선출.

▲趙益來(60년 法大卒·前慶南知事)‖1월3일 錦湖開發㈜ 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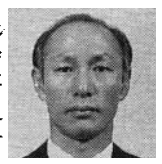
1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음. 수상작품은 K에겐.

▲申世吉(61년 商大卒·本會理事)‖지난 1월5일 第一企劃㈜ 대표이사 副社長으로 전보.

▲李洙彬(61년 商大卒·本會副會長)‖지난 1월5일 三星生命保險㈜ 사장에서 대표이사 副會長으로 승진.

▲成基翰(62년 工大卒)‖지난 12월28일 금성산전㈜ 전무에서 금성계전㈜ 부사장급 대표이사 社長으로 승진.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敎授·本會理事)‖최근 시집「誤字인생」을 펴내고 6회 개인전을 가졌으며, 문교부장관 교육공로표창을 받음.



▲卞圭七(62년 法大卒·本會理事)‖지난 12월28일자로 럭키금성商事 사장에서 그룹會長室 사장으로 전보.

▲梁甲錫(63년 文理大卒)‖지난 12월31일 高麗綜合化學사 社長에서 그룹 경영기획실 社長으로 전보.

▲李東馥(63년 文理大卒·前국회의장비서실장)‖1월15일국무총리 특별보좌관에 임명됨.

▲申成淳(63년 法大卒·中央日報 논설위원)‖최근 중견언론인들의 연구 친목단체인 寬勵클럽 총무에 선출됨.

▲金大榮(63년 商大卒)‖지난 1월15일 雙龍洋灰工業㈜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河龍彩(63년 商大卒)‖1월17일 味元그룹 비서실장에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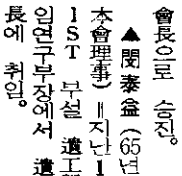
味元 사장으로 사장에서 第一合纖㈜ 사장으로 전보.

▲徐柱仁(64년 工大卒·本會理事)‖1월5일자로 三星電機㈜ 사장에서 第一合纖㈜ 사장으로 전보.

▲李 進(64년 文理大卒·前國務總理비서실장·本會理事)‖1월8일자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理事長에 취임.

▲金鎭武(64년 法大卒·三洋반도체顧問)‖2월3일 宇宙電子㈜ 사장에서 연구소 會長으로 승진.

▲金容元(64년 法大卒·本會理事)‖지난 1월1일자로 大宇경제 전보.



會長으로 승진.

▲閔泰益(65년 師大卒·本會理事)‖지난 1월4일 KIST 부설 遺工學센터 선임연구부장에서 遺工學硏究所長에 취임.

▲權勝漢(66년 工大卒)‖지난 1월5일 三星電子㈜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

▲裵洵勳(66년 工大卒·本會理事)‖지난 1월1일자로 大宇전자 社長에서 宇기전 社長으로 전보.

▲金德煥(69년 文理大卒)‖지난 1월16일 ㈜雙龍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張基澤(69년 法大卒)‖1월15일자로 雙龍重工業이사에서 상무로 승진.

▲魚慶健(71년 工大卒)‖1월5일자로 三星코닝㈜이사에서 상무로 승진.

▲朴正男(73년 工大卒)‖지난 1월5일 三星데이타시스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

▲金貳煥(74년 新聞大學院卒·本會理事)‖亞南精密㈜ 비서실 전무에서 지난 1월17일 계열관매회사인 亞南광학㈜ 부사장으로 승진.

▲盧錫鎬(75년 行政大學院卒)‖지난 1월5일 三星重工業㈜ 전무이사에서 副社長으로 승진.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김충현(87년 農大卒)군·조미라양‖2월2일 11시.

△김원용(89년 人文大卒)군·최현순양‖2월2일 12시30분.

△권오성(90년 經營大卒)군·최선희양‖2월2일 오후2시.

△배태곤(85년 法大卒)군·도혜경(89년 看護學科卒)‖2월3일 11시 30분.

△이재영군 정기(醫大재

同門을 찾아서

司法府 새 首長 金德柱 동문

"法治확립, 基本權보장 힘쓸터"

法曹界선 오래전부터 「大法院長감」주목

「닭이 千이면 鳳이 한마리란 속담이 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릴때부터 특출하게 타고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 동문들도 이나라 최고의 知性으로서 사회 각층에 서 있는 동문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앞으로의 기간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經濟發展과 民主化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統一의 대업을 이룰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司法府의 중책을 맡은 저로서도 法治主義의 확립과 基本權 보장이라는 사법부에 부여된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自由와 平等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法曹人의 길을 택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아버님의 권유도 있었고, 어린마음에 法學을 공부하여 社會正義 실현에 기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大學 2학년때 아버님이 돌아가셔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어머님께서 이에 굴하지 말고 법학도의 꿈인 高等考試에 합격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고시준비에 임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遺志를 받드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金동문은 56년 모교 法大를 졸업하면서 그해 시행된 제7회 고등고시 司法科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관계로 막바로 大邱地法 판사로 부임, 동기들 보다 일찌감치부터 선배추자의 길을 걸었다.

66년 동기생들이 한창 평판사의 길을 정진하고 있을때 그는 일약 서울民事地法 부장판사로 발탁됐으며, 73년 서울高法 부장판사로 승진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후 77년 春川地法院長으로 승진했고, 79년 서울民事地法院長, 80년 法院行政處차장을 거쳐 81년 大法官이 됐다.

86년 4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金동문은 2년여동안 辯護士 생활을 하다가 88년 7월 李一珪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재임명돼 大法官 서열 1위로 직무해오다가 이번에 大法院長으로 임명된 것이다.

33년 忠南 扶餘에서 출생한 金동문은 쭉우한 사법행정경력을 갖춘 인물로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大法院長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평소 생활신조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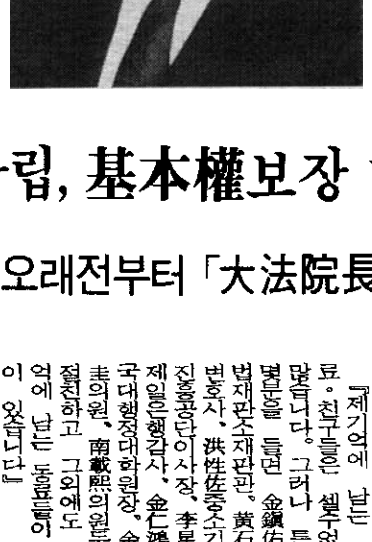
『특별한 것은 없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덕목으로서 공평하고 균형잡힌 태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태도를 누군가 한마디로 中庸이라고 말하였는데, 적절한 표현같습니다』

—校友관계는 어떠신지요.

『제기억에 남는 동료. 친구들은 셀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별문을 들면 金鎭佑헌법재판소재판관, 黃石淵변호사, 洪性佐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李星圭제일은행감사, 金仁鴻동국대행정대학원장, 金東圭의원, 南載熙의원등이 절친하고 그외에도 기억에 남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金동문은 집안 어른의 소개로 결혼한 任玄中여사와의 사이에 1男3女를 두고 있는데 세딸은 모두 출가하고 아들은 현재 군복무중이다.

2천년대를 지향하는 司法府의 首長으로서향후 6년의 재임기간을 통해 司法行政 능력이 유달리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金동문에게 건는 기대는 남다르다. 〈金庚勳기자〉



訃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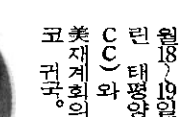
▲李俊雨(75년 新聞大學院卒·東亞日報 출판국장·本會理事)=지난 1월13일 오전3시40분 서울대병원에서숙환으로 별세.

▲宋在映(82년 社會大卒)=최근 노스케롤라이나大學에서 經濟學 박사 학위논문최종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딸과 함께 체불휘에서 교통사고로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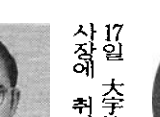
▲李聖秀(52년 師大卒·本會常任副會長)=지난 1월21일 前 現職 국회의원들의 친목단체인 大韓民國憲政會 부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李濱彬(54년 文理大卒·前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本會理事)=1월7일 韓信經濟硏究所 고문에 취임.

▲金在中(54년 工大卒·㈜한국하우톤副社長·國際技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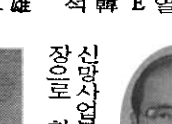


국무역협회會長·本會理事)=1월18~19일 팔라틴프르에서열린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와 미국에서 열린 韓美재계회의 운영회의에 참석코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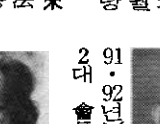


▲金正雄(57년 工大卒·前大宇自動車사장·本會理事)=1월17일 大宇造船국민차부문담당사장에 취임.

▲金鷹來(57년 法大卒·前총무처長官)=지난 12월18일 원로 고등고시출신자(행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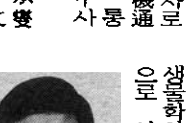


▲金洛性(60년 工大卒)=1월12일자로 韓國電機通信公社 통신망사업본부장에서 제2부사장으로 취임.



▲廉承燮(61년 文理大卒·啓明大교수)=최근 2년 임기(91·92년)의 韓國뷔히너學會 2대 會長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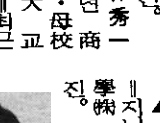
▲黃東奎(61년 文理大卒·詩人)=1월18일 계간 현대시세계가 제정한 김종삼문학상 제



女大 교수)=최근 열린 한국미생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任德淳(62년 師大卒·忠北大 교수·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副會長)=최근 저서「文化지리학:문화와 地理와의 관계」를 法文社를 통해 출간.

▲郭秀一(63년 商大卒·母校經營大 교수)=최근 열린 한국경영과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또 한국골름비아大 동창회장으로도 추대



▲李弼坤(65년 商大卒·本會理事)=지난 1월5일 三星物産㈜ 사장에서 대표이사 副

회관에서 열린 學園暖學會회원모임인 밀알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金應翊(64년 保健大學院卒·母校 保健大學院 교수)=최근 열린 한국보건통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선출.

▲申勝敎(65년 工大卒)=지난 12월28일 金星電線㈜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

▲李廷浩(65년 工大卒)=지난 12월28일 럭키石油化學㈜ 전무에서 부사장으로승진.

서울 교통

△김인환(85년 師大卒) 양=2월3일 오후1시.

군·이명자(87년 師大卒) 양=2월3일 오후2시30분.

△박상배(89년 農大卒)

군·김순희양=2월4일 오후2시.

△박성원(85년 法大卒)

군·김희진양=2월9일 11시30분

△남선호(88년 經營大卒)

군·이우영양=2월9일 오후1시.

△배재탁(88년 社會大卒)

군·김남연양=2월9일 오후2시30분.

△김명진(87년 社會大卒)

군·이춘구양=2월9일 오후4시

△이광원(85년 農大卒)

군·우상건양=2월10일 12시30분.

△박봉수(獸醫大재학중)

군·이정단양=2월10일 오후3시30분.

△김유성(86년 工大卒)

군·송연옥양=2월23일 11시30분.

△이일영(85년 工大卒)

군·김선여(88년 藥大卒) 양=2월23일 오후1시.

△양동빈(89년 經營大卒)

군·한현주양=2월23일 오후2시30분.

△엄태현(90년 醫大卒)

군·송미강양=2월24일 11시30분.

△이지웅(86년 工大卒)

군·최은하양=2월24일 오후1시.

△남강욱(88년 社會大卒)

군·김신남양=2월24일 오후2시30분.

△이창우(89년 工大卒)

군·김성희양=2월24일 오후4시.

△주석진(工大재학중)

군·김미옥양=2월26일 12시30분.

年會費내주신분

〈일반 : 11월17일~1월17일까지
이사 : 12월17일~1월17일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家政大學
▲金京愛㉜ 전남대학교 교수
▲張權花㊼ 광주교대교수

◇工科大學
▲李永煥㊽ 한국에너지연구소이전공학부장
▲金昌洙㊸ 부한산업사사장
▲林成澤㊽ 삼남석유화학사장
▲李喜鍾㊼ 금성산전사장
▲張明洙㊻ 전북대학교 교수
▲金昌圭㊽ 대림산업부회장
▲金容珠㊻ 경원세기상무이사
▲李鍾根㊷ 금동석유부사장
▲金讚煜㊾ 이수화학사장
▲李允宰㊶ 세일교역사장
▲張仁甲㊾ 아람통상사장
▲李愚賢㊽ 중앙대토목과교수
▲閔炳瓚㊻ (전)한국공항고문
▲許丙九㊷ 동이광업본설현트사장
▲朴炳華㊸ 대로빌딩회장

◇農科大學
▲金祥鎬㊷ 대풍상사사장
▲尹用健㊻ 예산동업전문대교수
▲金鎭八㊷ 미성동약사장
▲安在淑㊸ 한국농지개발연구소이사장
▲趙成鎭㊷ 충북대농대교수
▲金康植㊻ 농촌진흥청차장

◇家政大學
▲金正浩㊻ 농촌진흥청원예시험장
▲金億年㊻ 세계물산사장

◇文理科大學
▲黃政顯㊷ 한국경영자협회전무
▲韓相準㊽ 한양대명예총장
▲韓萬年㊾ 도서출판일조각사장
▲金鍾球㊷ 건설공제조합이사장
▲高相斌㊼ 영우통상고문
▲金顯哲㊺ 삼미정공전무
▲朴暢成㊾ 금성알파스전자사장
▲殷茂一㊺ 전북대학교인문대교수
▲朴正燮㊽ 대한제당부사장
▲朴相林㊾ (주)송정가사장
▲朴景允㊸ KAIST시스템공학센터
▲鄭男㊹ (전)국회의원
▲삼미고문
▲李文弘㊹ 선일상선상임고문
▲金榮洙㊹ 한국종합화학공업이사장
▲徐明源㊻ 전문교부장관

◇美術大學
▲張潤宇㊷ 성신여대미대교수

◇法科大學
▲李海元㊸ (전)보건사회부장관
▲林洪彬㊻ 문화사상사회장
▲金鎭佑㊻ 헌법재판소재판관·변호사
▲盧信永㊹ (전)국무총리
▲朴東烈㊾ 새한종합금융부장
▲李泰元㊶ 대한화공전무이사
▲韓東元㊻ 언론중재위사무총장

▲尙世煥㊺ 서울신탁은행기업분석부장
▲康祐赫㊷ 국회의원
▲崔洛賢㊽ 계성제지부회장
▲鄭沃均㊷ 범양화학고문
▲裵基政㊹ 신성패카드사장
▲朴哲彥㊺ 청소년체육부장관
▲郭正出㊸ (전)국회의원
▲白南治㊽ 국회의원
▲文仁龜㊿ 변호사
▲金鍾國㊾ 진안통상사장
▲金平祐㊼ 변호사
▲林采洪㊿ 임채홍법률사무소
▲金世勳㊽ 평안섬유사장
▲玄在賢㊶ 동양그룹회장
▲姜錫祥㊺ 부흥상사사장
▲徐廷和㊺ 국회의원
▲李圭孝㊼ 변호사
▲鄭熙彩㊷ 서울시립대총장
▲李基萬㊷ 대신통상사장
▲朴種植㊷ 명동법부법인대표

◇師範大學
▲河光彥㊹ MBC보도제작국부국장
▲尹明烈㊼ 문정중학교장
▲朴鍾玉㊼ 고려중학교장
▲鄭然優㊾ 기아기업사장
▲李壽善㊺ 용인태성고교장
▲鄭仁戴㊹ 건국대사대교수
▲李興卓㊹ 한국외국어대교수
▲郭漢哲㊹ 서울고등학교교장
▲任弘宣㊼ 제주교육대교수
▲張忠植㊷ 단국대학교총장
▲趙南善㊽ 요셉인쇄공사사장

◇商科大學
▲趙政振㊼ 조흥은행자금부장
▲魚準㊹ 서경통상사장
▲吳漢九㊼ 국회의원
▲沈載善㊹ 태산신용금고사장
▲李昌一㊺ 대왕사장
▲全昌基㊸ 유유산업부사장
▲權寧大㊻ 오리엔트해운대표이사
▲金斗山㊸ 한국유리공업경리상무이사
▲李炳宣㊼ 한일리스회장
▲趙繼基㊺ 센터대표
▲方漢烈㊼ 한일온행상무

◇獸醫科大學
▲金種相㊷ 한국화이자상무
▲車鍾相㊻ 중랑가축약품
▲桂奉龜㊶ 동원신약사
▲李昌雄㊺ 화남상사사장
▲崔榮喆㊸ 한국크로웰석유상무
▲鄭大永㊺ 한두통산사장
▲李起俊㊹ 원기무역사장
▲文鎭錫㊶ 연합물산사장
▲金榮大㊼ 은행감독원국장
▲朴允錫㊶ 안성유리공업전무이사
▲李龍鎬㊼ 협진양행회장
▲李德鍾㊻ 덕우상사사장
▲嚴鎰永㊼ 증권감독원상임위원
▲高學模㊿ 대주무역상사사장
▲鄭興寶㊶ 문화방송국TV기자

◇藥學大學
▲金洛斗㊼ 서울대약대교수
▲尹澤善㊼ 삼선교약국
▲金元寶㊼ 평안약국
▲李昌紀㊾ 국립환경연구원원장
▲黃秉龍㊿ 동국제약전무이사
▲徐廷祥㊾ 전북일보사사장
▲文兆鍾㊺ 국립보건원연구관
▲洪思璜㊽ 홍약국

◇音樂大學
▲文一枝㊽ 국립국악원안무자
▲權基澤㊸ 한양대음대교수

◇醫科大學
▲朴漢喆㊾ 한양대의대교수
▲洪淳元㊻ 홍순원외과원장
▲余台午㊼ 삼민의원
▲李鼎煥㊸ 중앙병원원장
▲安榮國㊿ 안산부인과
▲尹德善㊷ 한강성심병원이사장
▲朴贊一㊾ 서울대학병원치료방사선과
▲金豊明㊼ 명피부과의원
▲李承徵㊹ 경기후생병원장
▲金周一㊽ 글촌의원장
▲韓甲洙㊺ 단국대의대교수(천안)
▲方斗憲㊼ 방소아과의원
▲卞鍾和㊽ 변종화외과
▲蔡範錫㊽ 서울대의대생화학
▲朱植源㊸ 한국자동차보험상임고문
▲蘇柱永㊺ 소신경정신과

◇齒科大學
▲朴栽仲㊺ 상아치과의원장
▲成寧煥㊺ 성영환치과의원장
▲李今龍㊹ 맨션치과의원장
▲金義培㊽ 황해치과의원장
▲金學聖㊾ 중앙치과의원장
▲朴祥男㊻ 삼산치과의원장
▲金一㊺ 김일치과의원장
▲全壽植㊺ 전훈식치과의원장
▲丁東均㊻ 서울대치과대교수
▲李秀種㊼ 이수종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朴在玉㊿ 동아생명보험전무

◇敎育大學院
▲宋向燮㊾ 철도전문대학교수
▲鄭用述㊽ 광남고등학교교장

◇保健大學院
▲李烽基㊻ 동남치과의원원장
▲金成鎭㊾ 부산죄례병원원장

◇司法大學院
▲徐次洙㊸ 변호사
▲徐晟㊺ 서울고법부장판사

◇新聞大學院
▲金泰天㊿ 대한증권업협회상무

◇行政大學院
▲崔石立㊽ 대통령경호실차장
▲洪哲約㊿ 대한지방행정공제회장
▲崔霖甚㊹ 국회의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곽성문 ▲김정옥 ▲박정규㊽ ▲이창호 ▲전영운㊹ ▲김의진㊽ ▲이주영㊻ ▲김선산

◇社會大學
▲김명진㊼ ▲김이하㊾ ▲성옥섭㊾ ▲성봉경㊼ ▲신영진㊺ ▲옥기석㊽ ▲이근형㊺ ▲이홍철㊷ ▲황진우㊷ ▲민경휘㊿ ▲이정일 ▲조병철㊼ ▲조태용 ▲이재원㊼ ▲최선봉㊸ ▲정상돈 ▲최필선

◇自然大學
▲김고려㊶ ▲조선준㊼ ▲김혁주 ▲배성진 ▲신홍철㊷ ▲채쾌 ▲홍윤용㊸ ▲김윤봉 ▲박성찬㊽ ▲박해선㊽ ▲장태식㊿ ▲김홍수

◇家政大學
▲김영숙㊾ ▲이근영㊼ ▲전영숙㊷ ▲김은근 ▲박계현 ▲설현숙㊿ ▲지주원㊽

◇經營大學
▲김봉운㊾ ▲서태환㊼ ▲손병재㊻ ▲송영태㊻ ▲남상오 ▲이정호

◇工科大學
▲이 건㊾ ▲강인찬㊺ ▲고유문㊺ ▲곽병헌㊼ ▲김 갑㊸ ▲장찬우 ▲하진수㊷ ▲한병익㊶ ▲허수웅㊺ ▲홍종희㊻ ▲김명환㊸ ▲김안구㊸ ▲김영도㊼ ▲김용정㊻ ▲박한석㊶ ▲서정선㊶ ▲송영훈㊻ ▲송태근㊾ ▲심명규㊼ ▲심한배㊻ ▲양상현㊸ ▲우욱현㊹ ▲유상원㊼ ▲김덕태㊼ ▲김명재㊸ ▲김태환㊽ ▲신용철㊼ ▲장영기 ▲강대갑 ▲강응순㊺ ▲공영태㊻ ▲김무천㊼ ▲김재관 ▲김종홍㊺ ▲김봉순㊽ ▲김봉남 ▲박석완 ▲박요수㊼ ▲박태룡 ▲배후식㊻ ▲변광호 ▲송명택㊿ ▲신동엽㊼ ▲안기륜 ▲이정문㊶ ▲이철원㊹ ▲장주필㊽ ▲정연휘 ▲조범규㊼ ▲조택동 ▲최갑석 ▲최용환㊽ ▲한준원㊶ ▲홍동선㊶ ▲유태권㊽ ▲이경인㊻ ▲이대훈㊽ ▲이종송㊼ ▲이준원㊺ ▲이홍기㊼ ▲장정요㊾ ▲전병환㊷ ▲전창배㊺ ▲정영길㊽ ▲주영원㊸ ▲차재근㊺ ▲최종훈㊷ ▲한규상㊼ ▲권혁진㊺ ▲공인섭㊷ ▲김기철㊼ ▲이해경 ▲최찬근㊹ ▲한건우㊾ ▲허선부㊸ ▲홍효표㊺ ▲황정수㊻ ▲김상부㊸ ▲김영경㊺ ▲김예영㊽ ▲노부수㊼ ▲서경선㊼ ▲성응모㊺ ▲송준영㊼ ▲신국범㊻ ▲신복진㊺ ▲양계형㊸ ▲오병철㊿ ▲우효섭㊻ ▲강병원㊸ ▲김른환㊾ ▲김재수㊶ ▲김태영 ▲이한명 ▲황인수㊻ ▲강용식㊸ ▲강홍열㊷ ▲구영창 ▲김영중㊿ ▲김재봉㊸ ▲김종하 ▲김준철㊼ ▲남두헌 ▲박시원㊶ ▲박종호㊻ ▲박평수㊷ ▲백오규 ▲서몽원㊺ ▲신근수 ▲신세희㊼ ▲윤원식㊸ ▲이찬로 ▲이하진 ▲정득학㊼ ▲조태진㊾ ▲정원영 ▲차선형 ▲최길수 ▲최흥근 ▲홍동진㊺ ▲홍안의㊼ ▲윤재건㊿ ▲이국희㊾ ▲이시우㊼ ▲이준식㊻ ▲이철수㊺ ▲임형택㊶ ▲장진양㊼ ▲전복현㊽ ▲정병진㊾ ▲조현군㊾ ▲주인성㊶ ▲최성일㊹ ▲김백용㊼

◇農科大學
▲강영원㊻ ▲김백용㊼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해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발전 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年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年初에 내셔서 同窓會가 벌이는 事業에 일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倍前의 성원을 바랍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員 …… 1만원
- 理事 …… 5만원
- 常任理事 …… 10~20만원
- 監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長 …… 100만원

교과목별 이달의 협조 교수 및 협조 교수

고려대학교 협조 교수 및 협조 교수

◇ 醫學大學

◇ 藥學大學

◇ 獸醫大學

◇ 農科大學

◇ 工學大學

◇ 自然科學大學

◇ 人文科學大學

◇ 社會科學大學

◇ 法科大學

◇ 師範大學

◇ 文理科大學

◇ 音樂大學

▲권부일(72) ▲권칠주(63) ▲김귀윤(78) ▲김명진(79) ▲김영덕(77) ▲서성례(72) ▲서홍석(73) ▲신미강자 ▲김만경(67) ▲김애경(84) ▲김형묵 ▲박종민(77) ▲손의종 ▲이중근(74) ▲최영길(59) ▲양두병(77) ▲여복구(83) ▲윤임중(59) ▲이기춘(76) ▲이상은(77) ▲이인식(82) ▲이정호(79) ▲이태중(76) ▲임현춘(83) ▲장명옥(68) ▲전구연(56) ▲정기석(83)

▲권창재(63) ▲김구상(82) ▲김기술(51) ▲김성권(74) ▲김우성(81) ▲서재헌(75) ▲송영명(73) ▲안태영(77) ▲김명운(58) ▲김찬진(81) ▲문동진 ▲서정범(54) ▲신용우(72) ▲이호급 ▲양남길(57) ▲어정옥(63) ▲유정희(78) ▲이상원(61) ▲이서구(78) ▲이영길(51) ▲이일우(71) ▲이종희(77) ▲이학중(58) ▲임희례(77) ▲장봉현(63) ▲장규봉(65) ▲정문희(78) ▲정필현(82)

▲정방자(67) ▲정해현(80) ▲진용한(77) ▲최동섭(75) ▲최성엽(77) ▲최영민(80) ▲최완주(80) ▲최유배(73) ▲최종운(83) ▲한선희(80) ▲한인권(77) ▲홍미나(82) ▲김규환(49) ▲이상립(50) ▲김광애(74) ▲김류성(80) ▲박상철 ▲박홍직 ▲최병인(74) ▲정이관(45) ▲홍종관(47) ▲김기봉 ▲김오원 ▲김봉곤(76) ▲배종화(65) ▲장환식(79) ▲손태홍(77) ▲엄미란(82) ▲이영희(87) ▲장우환(82)

▲조경삼(73) ▲조용애(80) ▲지상근(76) ▲최봉호(67) ▲최영해(68) ▲최승원(77) ▲최우길(67) ▲최재운(82) ▲최진상(80) ▲한순주(82) ▲한혜숙(72) ▲황규천(80) ▲윤호영(49) ▲한본구(82) ▲김성심(57) ▲서종국(61) ▲박지홍(75) ▲서길준 ▲전행조(72) ▲허 훈(50) ▲김국기(67) ▲김삼태(82) ▲김분열 ▲문의주 ▲이현구(74) ▲전정열 ▲심명섭(76) ▲오인석(71) ▲이철호(79) ▲정난상(75)

▲주경란(75) ▲최수홍(67) ▲한미현(82) ▲진우정(78) ▲한미희(83)

◇ 看護學科

▲강옥녀(58) ▲김병국(54) ▲양은숙(54) ▲하양숙(71) ▲길광숙(61) ▲신귀남(58) ▲박경자 ▲박정윤 ▲김남련(56) ▲김성미(61) ▲임성례(54) ▲정정순(56) ▲송재은(57) ▲장향의 ▲박신애

◇ 齒科大學

▲강대준(72) ▲강봉기(75) ▲강순화(63) ▲강태성(77) ▲김 성(66) ▲김광주(76) ▲김명영(81) ▲김연봉(82) ▲김영환(72) ▲김영유 ▲김 건 ▲김상원(82) ▲김용남(74) ▲김영철(67) ▲김선용(69) ▲김명기(76) ▲김경종(79) ▲강대훈(80) ▲강세홍(74) ▲강운곤(57) ▲구영식(58) ▲강현유 ▲김기완(60) ▲김영주(70) ▲박순여(72) ▲김화춘(65)

▲박희하(69) ▲손일주 ▲안동성 ▲이규송(62) ▲임형준(70) ▲정영완 ▲조삼범 ▲홍성호(66) ▲손성희 ▲김원식(56) ▲성열주(61) ▲손주성(81) ▲신본철(69) ▲송광주(66) ▲신상철(55) ▲안성훈(81) ▲양재희(81) ▲염경철(81) ▲우제은(59) ▲윤보중호(80) ▲윤임도(78) ▲이갑주(77) ▲이계성(56) ▲이동주(62) ▲이명도(82) ▲이배진(66) ▲이병우(82) ▲이성근(76) ▲이성종(79) ▲이원복(68) ▲이일우(81) ▲이장윤(78)

▲변광주 ▲신 헌 ▲양희택(75) ▲이종진 ▲정기근(57) ▲정재영 ▲조홍준(51) ▲김원식(56) ▲성열주(81) ▲신본철(69) ▲손주성(81) ▲송광주(66) ▲양일주(79) ▲엄보용(81) ▲옥치범(75) ▲윤경희(75) ▲유성일(76) ▲윤화영(69) ▲이경주(79) ▲이동근(80) ▲이만선(72) ▲이명제(81) ▲이범모(80) ▲이선국(68) ▲이영대(74) ▲이원주(57) ▲이재철(77) ▲이종도(58)

▲이주봉(54) ▲이창순(58) ▲이해욱(82) ▲이호영(80) ▲일윤식(80) ▲작기완(79) ▲전광현(68) ▲정국운(73) ▲정해원(80) ▲차도신(79) ▲차영남(73) ▲최종호(74) ▲한부호(59) ▲허 택(77) ▲허석구(76) ▲홍준표(82) ▲황 준(69) ▲황오현(56) ▲황하경(56) ▲강영진(61) ▲김용성(81) ▲서성구(81) ▲안규소(72) ▲이지화(67) ▲김광빈 ▲남한우 ▲박동욱(73) ▲박형기(59)

▲이주민(68) ▲이중희(57) ▲이철용(77) ▲이형규(61) ▲이화용(59) ▲임택재(61) ▲장현일(75) ▲정규배(81) ▲정용식(70) ▲조보연(71) ▲차석원(75) ▲최석진(54) ▲한광주(78) ▲한태원(76) ▲허남기(83) ▲현군자(67) ▲홍순창(78) ▲홍한표(79) ▲황영무(69) ▲현건모(55) ▲김경원(76) ▲김원기(57) ▲성길현(81) ▲오성욱(82) ▲황영무(78) ▲김해만(42) ▲노성운 ▲박찬성(56) ▲성백균(71)

▲심대섭(59) ▲우성오 ▲한성협(76) ▲권영오 ▲김용선 ▲김정태 ▲김태의(67) ▲박명훈 ▲박홍식 ▲송희춘 ▲이재철 ▲전동진(60) ▲조한준(57)

◇ 大學院

▲고성효(81) ▲이만우(74) ▲권노중(80) ▲방영준 ▲전광진 ▲장현구

◇ 經營大學院

▲서상혁(82) ▲김정웅 ▲이꽁호(71) ▲장대길(69)

◇ 敎育大學院

▲김병국(72) ▲엄태정(66)

▲안성모(74) ▲최경열(62) ▲한창근 ▲김상철(79) ▲김인근 ▲김철성(59) ▲노수영(77) ▲박상덕 ▲방스웅(70) ▲이수일(78) ▲이종우(61) ▲조종옥(60) ▲함종대

▲박배영(76) ▲이종호 ▲길호용 ▲이종광 ▲정호선

◇ 大學院

▲김영길 ▲이정부(71) ▲임대균 ▲정영균(68)

▲길도렬(69) ▲장윤우(65)

▲서병완(68) ▲이웅호(70) ▲신호웅(71) ▲황현익(65)

◇ 保健大學院

▲구균회(69) ▲김광혁(78) ▲김덕성(73) ▲김미배(78) ▲김준례(77) ▲김영웅(77) ▲양정희(80) ▲윤준녕(76) ▲이성우(75) ▲이일운(68) ▲고관석(83) ▲권오균(69) ▲김경자(72) ▲김대율(76) ▲김매자(74) ▲김죽자(84) ▲정문녹(77) ▲신광훈(73) ▲윤석춘(61) ▲이관식(77)

職場支部

▲大韓生命㈜ 20만원
▲科技院 10만원
▲大韓석탄공사 20만원
▲동주산불유통공사 16만원
▲삼부토건㈜ 7만원
▲호남정유 40만원
▲배화여고 12만원
▲국토개발연구원 13만원

〈지면관계로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모임 探訪

샌드페블즈會

20년 歷史의 農大 서클
6期는 「大學가요제」서 大賞

지난해 11월3일은 「샌드페블즈」에게 있어 무척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은 이 모임이 결성된지 20년이 된것을 자축하는 공연이 열린 날이었기 때문이다.

「샌드페블즈」는 모교 農大재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사운드로서 현대음악을 취미로 하는 서클로 등록돼 있는데, 지난 20년동안 발표회나 축제공연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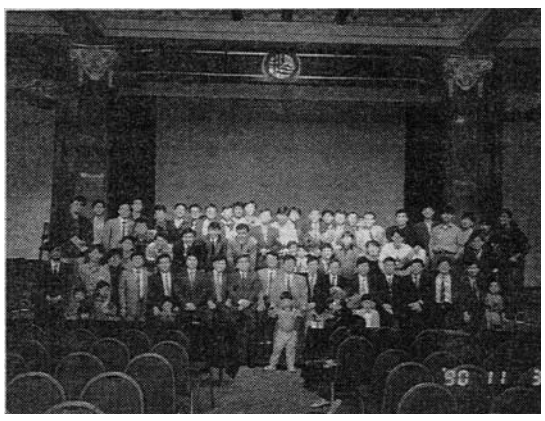
이들은 77년에 6期에서 「나 어떡해」라는 자작곡으로 모방송국대학가요제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한 후로 방송매체를 통해 그 이름이 알려졌다.

현재 이모임을 거쳐간 동문의 수는 1백20명을 넘고 있는데, 이들은 「샌드페블즈會(회장 몬乘燮·80년卒 LG애드)」라는 이름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지난 11월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은 서울大人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주와 노래로써 교감하는 현장은 심심하고 뜨거웠다. 아기를 안고 나온 아버지에서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학생까지 모여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며열창하는 모습에서 20년 나이찬는 찾을 수 없었다. 그가운데는 不惑之年을 넘긴 교수님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인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선배들은 당시일화를 이렇게 소개한다.

「연습장인 콘셉트마사가 위치한 곳이 공교롭게도 王모교수님댁과 담하나 사이라 교수님이 밤9시까지만 연습하라는 부탁을 했고, 그러마고 했던것이 열기에 휩쓸려 10시, 12시까지 계속됐는데 12시가 넘자 담넘어 교수님댁에서 돌이 날아오더니 1시가 넘어서 막사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 문을 열고 보니 王교수님이 무섭게 화난 얼굴로 연총을 들고서 계시더군요」

이들은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5년에한번씩 이런 기념공연을 갖고 있다. 현재 1백20여명의 회원 가운데는 사회각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박사학위자만 40명이 넘는다는데서 이들의 위상을 알수 있었다.



◇ 창립 20주년 기념공연을 마치고

매년 봄 가을에는 홈커밍데이를 갖고 후배들의 지원에도 열심인데, 이번 공연을 위해 미국에 있던 동문들까지 날아와 합류할 정도로 끈끈한 우애를보여주었다. 「혼히들 악기나 만진다고 「딴따라」운운하지만 재학중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도 선배로부터 호되게 맞기도 했다」는 金永國(80년卒·캘리포니아와인협회 서울사무소장) 동문의 말이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전체 회원들이 양평의 MT를 떠나는 가운데 창립멤버의 한사람인 朱大明(74년卒·가톨릭醫大교수) 동문은 이렇게 말한다.

「지나온 20년을 회고할 때, 農大에서 무슨 퇴폐음악이냐고 천덕꾸러기로 구박받던 우리가 이제 서울農大하면 사람들이 샌드페블즈를 연상할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가우수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좋은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실은 샌드페블즈를 거쳐간 수많은 회원들과, 이들을 도와준 이름없는 학우들의 수고, 그리고 학교당국의 끊임없는 도움의 결과인것이다. 따라서 샌드페블즈를 사랑해준 모든이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하고싶은 것이다」

〈H〉

健康 教室

壽命의 개인差

—— 金 南 柱 〈88년 保大院卒·잠실한의원장〉

우리나라 명사록을보면 壽命에 관하여는일정한 규칙이 없다。

어느 사람은 돈도많고 지위도 높아서 오래오래 天壽를 다할것 같은데 半百도 못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어느 사람은 비록 財福은 없지만 90을 넘어서도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老人도 있다。

그러면 왜 누구는 長壽를 하고 누구는 短命한는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因果論을 들어 보고자 한다。

황제내경을 참고로하면, 황제가 묻기를 옛날사람들은 나이가 백세를 넘어도 몸이 건강하고 동작이 빨랐는데 요즘사람은 50세가 못되어서 동작이 느리고 근육이 약해지니시대가 다르기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다。

신하인 기백(岐伯)이 대답하기를 옛날사람들은 道를 알아서음양(陰陽)을 분명히했으며 꾀를 부리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며기거(起居)를 명백히하고 과로를 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으므로 백세를 넘어도건강하게 산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술을 절제하지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며 나쁜짓을 밤낮없이 하며 술김에 성욕을채우고 매사에 절제를못해서 元氣가 소모되고 진액(津液)이 고갈되어 壽命이 半百年도못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우박(虞博)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長壽와 短命中 하나를 타고 나는데 선천적으로 氣를 잘 타고나면 修養을 소홀히 해도오래살고 氣를 잘못 타고 나면 修養을 잘해도 요절(夭折)한다。

그러나 외부적환경과 내부적질병 그리고 과로나 과음을 피할수가 없으니 어찌 잘 타고난 氣만 믿겠느냐고말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가지 약초로체질에 맞도록 약을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天壽를 누렸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몸을 단련시켜서天命을 다한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나쁜건강이 좋아지고 죽을 것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醫員은 神明과 造化를 잘하여夭折할 사람을 長壽하게 만들고 長壽할 사람을 神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長壽하려면 정신건강을 안정시키고 외부환경을 깨끗이 하며 음식을적절하게 먹으며 酒色雜技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황제들이 먹던 공진단이 不老長壽藥으로 쓰여졌다。

공진단은 기(氣)를 보하는 인심 또는 산삼과 혈(血)을 보하는 녹용 行氣를 잘시키는 사향 그리고 당귀 천궁 맥문동 천문동 산약등등 진액을보강시키는 약재로 만들며 아직까지도 不老長壽에 으뜸가는 약이다。

3년전에 중국에 들어가 보니 몇몇 사람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진단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근래에는 암이라는 말이 삼척동자도다 알정도로 흔하면서 人間의 壽命을 단축시키고 있다。 암은 우리한방의학에서는 적(積)이나 취(聚)라고 불렀으며 오장육부(五藏六腑)에 오적육취(五積六聚)가 있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암이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생각했지만 근래에는 암에 대하여 많은 치료방법과 예방법이 개발되어서 한방치료를 받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 여름에 북경한의과대학과 상해한의과대학에 가서 암병에대한 토론회를 가진바있다。 특히 상해한의과대학의 구가신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치료박사이며 특히 암을 예방시키는 기술이 뛰어난 학자로 한방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분의 특징은 암이 발견되면 우선 수술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를 마치고 바로암을 재발하지 않도록방암제(防癌劑)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암에 걸린사람은 암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막아내는 힘이 적기때문에 재발이 쉬우므로 재발을 방지하는 약을 써야 된다는 理論이다。 실제로 연구논문을 보면 방암제를 복용한사람은 5년이내에 재발율이 25%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연구보고가나와 있다。

한방의학에서도 암의 원인이 음식부절(飮食不節)과 오로칠상(五勞七傷)이라고 보았으니 음식과 신경이 암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따라서 너무 기름진음식과 자극성음식 그리고 새까맣게 탄음식은 먹지 말것이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것도 나쁘다。

약물로는 인삼 녹용 웅담 천마 초룡담 당귀 천궁 실보 황련 회수등 여러가지 약제를 병세나 체질에 맞도록 처방해서 복용하면 암의 재발로 인한 사망률은 적어질것으로 믿는다。 처방으로는 교남방 교환방 수전발등여러가지의 처방이 많이 있다。

◇ 上海한의과대학의 구가신교수(우측)와 토론하고 있는 金남주동문(右에서 3번째)。

精神안정·飮食절제가 長壽비결

中國皇室선 「공진단」을 으뜸가는 藥으로 꼽아

趣味생활

바둑

—— 姜 哲 民 〈4〉

〈61년 商大·프로七段〉

圍碁十訣

7、愼勿輕速

경솔히 두지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말로손이 나가기 전에 다른데 한두곳은 비교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부분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반면을 두기전에 한번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

8、動須相應

行馬는 반드시 주변 정세에 호응케하라는말로 이미 놓인돌과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수를 계속두어나가면 승리를 쉽게 얻을수 있다。 즉 定石을 선택할 때도 이미 놓여진돌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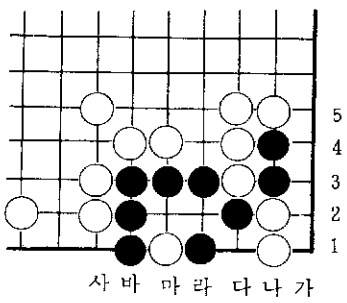
9、彼强自保

상대방의 강한 돌이 옆에 있을때는 자기돌이 약점이 없나를 살펴보고 보강을 하는게 좋다는 말로 돌의 강약은 상대적으로 서로 약한 돌이 붙어 있으면 약하다해서 보강할 필요가 없다。

10、勢孤取和

勢가 외로우면 和를 取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강한 곳에서 공격받을때는 작은것은 양보하고 빨리 도망간다든지 상대방에 돌을주더라도 빨리 안정을도모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책을 쓰는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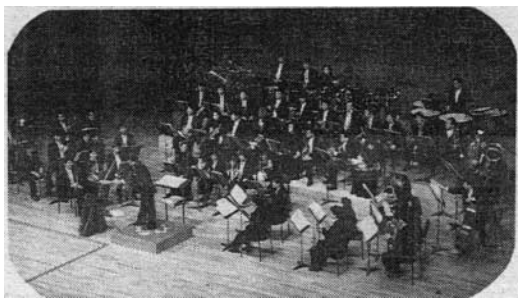
다음호는 위기십결 1번부터 실전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黑先活—

【精解】 초보자는 마2로 착점하면 두집이 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白이 다1로응수하면 黑은 쉴길이 없다。 그러므로 가2로빈삼각을 만들고 들어가면 白은 다1로 들어올 수가 없어 결국응수할 곳은 마2。 이때 黑가3으로 약점을 보완하면 白으로서는 가5밖에는 마땅한 곳이 없다。 이때 라2로 白두점을 잡으면 白가4로 우변 흑4점을 노릴때 가만히 다1로응수한다。 이어 白가1로 우변 흑을 따내면 黑나3。 곧 后切手로 黑生

音樂의 꽃다발 발렌타인콘서트



◇ 서울 윈드앙상블

◉ 일시 : 2월12일 오후 7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문의 : 서울예술기획(548-4481)

모든 世代 즐기는 音樂잔치

클래식음악공연 전문기획단체인 서울예술기획이 일부 기업의 편향된 상업주의로 인해 왜곡돼가는 「발렌타인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고자 마련한 기획.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윈드앙상블(지휘 서현석·61년音大)의 라이트 클래식 ▲황혜숙(소프라노·81년 音大) 박치원(테너·65년 音大)동문의 오페라 ▲김영준(바이올린·71년 音大) 김용배(피아노·79년 大學院卒) 동문의 연주 ▲도스안젤리카(플루트 : 이혜경 하프 : 박라나·82년 音大)의 연주 외에도 클래식과 가요의 만남등으로 구성되어 클래식명곡으로부터 친근한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따뜻함을 확인하는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이다.

公演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2월6일 예술의 전당

金蜂(79년 音大卒·경원大교수) 동문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S.바버의 아다지오, 드보르작의 심포니 9번 신세계로부터등이 연주된다. 민간교향악단이 지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시도로써 꾸준한 연주를 펼쳐온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이번 연주회에는 姜姙賢(87년 音大卒·피아노) 동문이 협연한다.

▲金民淑 피아노독주회
— 2월21일 예술의 전당

모교 音大졸업(76년)후 독일 폴크방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획득, 귀국후 5회에걸친 독주회와 여러 교향악단과의 협연등 꾸준한 연주활동을 펴고 있는 金民淑동문의 이번 독주회에서는 베토벤에서 라흐마니노프에 이르기까지 피아노의 정수를 선보인다. 현재 모교음대에 출강중인 金동문은 지난 86년 스페인 문부성초청으로 국제 스페인음악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연주하기도 했다.

金民淑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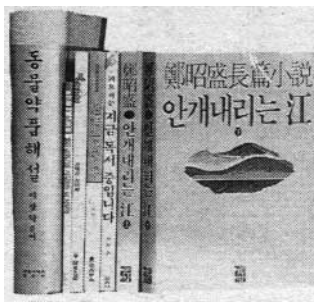
▲예음클럽 정기연주회
— 2월6일 예음홀

실내악 발전에 뜻을 둔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된 예음클럽은 모짜르트 서거 2백주년이 되는 금년, 모짜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2월 공연에는 클라리넷·비올라·피아노를 위한 3중주 E플랫장조 K.498을 연주한다. 이외에도 현악4중주 제14번 G장조 K.387을 비롯, 하이든의 곡도 연주되는데 김용배(피아노) 이택주·김순영(바이올린) 오순화(비올라) 이정근(첼로) 등이 협연한다.

新刊

▲동물약품해설
— 李長洛著(49년 獸醫大卒·모교敎授)

이책은 「동물약품공정서」에 수재된 371품목 등 총 796품목의 동물약품에 관해서 주로 그 性狀과 각종 동물에서의 응용을 알기쉽게 풀이하고 있다. 이책이 지니는 의미는 수의사를 비롯한 수의학도 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제반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그간 국내 해설집이 미흡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록약물의 치료학적 분류, 한글 영문찾아보기 및 제품상표명등의 색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이책은 저자의 「수의약리학」과는 자매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출판부刊·2만5천원〉



▲떨레마띠끄
— 徐正旭著(57년 工大卒·과학기술처차관)

이책의 제목은 텔레코뮤니케이션과 인포마띠끄의 합성어로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융합에 의한 기술적 사회변화를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저자는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전기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관여한 경험을 근간으로 이책을 통해 제3의 기술혁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 섬세한 필치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책을 통해 우리는 과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모시킬까 하는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정보시대刊·4천원〉

▲숲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시각에
— 金炯德著(筆名 金后蘭·62년 師大·公益資金管理委員會 위원장)

『근래의 나의 관심사가 인간생명의 존귀함에 쏠리고 그때문에 정에 더욱 이끌리는 심정』이라고 저자가 시집의 첫머리에서 밝히듯 이 시집은 복잡한 사회구조와 신경이 마모되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직 감동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삶에 집착하며, 더러는 얼마간 초연해지면서 느껴왔던 시편들을 모아 다섯번째로 내놓은 시집이다. 〈어문각刊·2천5백원〉

▲안개내리는 江 〈上·下〉
— 鄭昭盛著(69년 文理大卒·단국大교수)

원고지 4천매의 방대한소설 「안개내리는 江」은 鄭동문의 네번째 장편소설이다. 자전적 소설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책에서 저자는 60년대 초반의 정치적 사건, 가족사, 연애사건, 우정등 사춘기소년의 눈을 통해 본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 소설은 사회소설이면서 젊은이들의 사랑의 병리학을 심도있게 다룬 연애소설이기도 하다. 한편 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어떤 병리학으로 생성, 성장, 소멸하는가를 밀도있게 탐구하고 있다. 〈열린책들刊·각권 4천원〉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 金漢坤著(71년 行大院卒·농림수산부기획관리실장)

저자는 전문관료로서 실제 경험한 바와 이론을 조화시켜 일제에 의한 식량수탈과 배급제시대, 광복 이후 미국의 식량원조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을 개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가들의 식량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을 우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당면한 식량문제, 농촌문제의 대응방향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東亞출판사刊·4천2백원〉

▲피보씨는 지금 독서중입니다
— 柳子孝著(75년 師大卒·KBS외신부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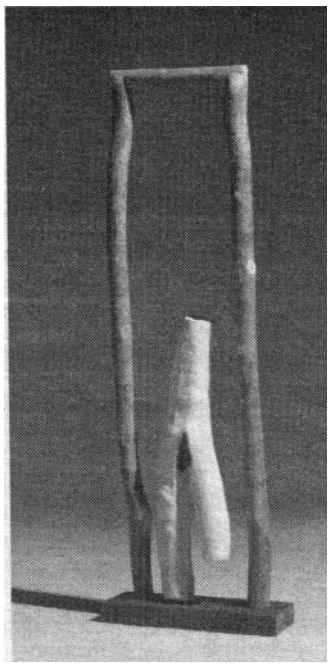
파리특파원 생활중 방송보도로 표현하지 못했던 체험을 담은 산문집. 외국인의 눈에 비친 프랑스의 모습을 우리와 대비시켜 저자 특유의 감성으로 그리고 있다. 아울러 이책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급변하는 동유럽과 전쟁·개혁에 몸부림치는 중동에서 써내려간 치열한 취재기이다. 우리는 이책에서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오늘과 내일, 인류애와 비전을 만날 수 있다. 〈열음사刊·3천8백원〉

展示

◇박미화陶彫展

〈79년 美大卒·전북산업大출강〉

국내에서 흔치 않은 陶彫작가 朴동문의 첫 개인전. 이번 전시회에서는 89년 美펜로즈갤러리에서 발표, 주목을 받았던 독특한 테라코타작품들로 꾸며진다. 朴동문은 『작품을 통해 女性의 삶, 그중에서도 약한듯 강하면서 아름다움과 힘을 동시에 지닌 모습을 형상화 하다보니 작품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은 男女가 아니라 모두 女性』이라고 한다. 한편 朴동문은 작품에 대해 『입체인 만큼 형태가 가장 중요하지만 흙의 질감과 회화적 분위기 또한 강조하고 싶어』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더이상/흙·안료·나무/1990

母校소식

鮮京經營舘으로 이전

經營大學

鮮京그룹에서 건립·기부채납한 선경경영관이 완공됨에 따라 經營大學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 1월10일부터 행정업무를 시행했다. 교수연구실 및 행정실의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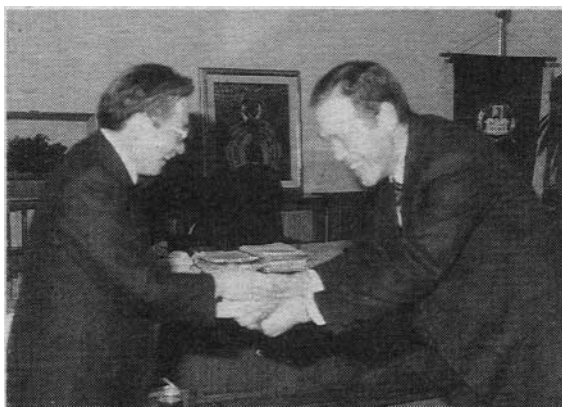
한편 經營大의 이전에 따라 그동안 경영대가 사용하고 있던 9棟은 인접대학이 시설수요를 우선 충족시킨다는 배정기준에 따라 行政大學院과 師範大學에서 교육연구동으로 활용키로 했다.

「圖書館발전계획」차질 우려

豫算 올리면 깎이기 일쑤

韓國火藥 2백50억出捐 큰힘

政府·企業体·同門 관심 절실



◇ 한양화학 박원배 사장(右)이 趙총장에게 90년도 약정금 80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2월29일 모교총장실에서는 한국화약(회장 金昇淵)이 출연한 「서울대학교 圖書館장서기금」 90년도 출연약정금 80억원에 대한 증정식이 있었다.

趙完圭총장·金永國부총장등 모교 관계자와 한양화학 朴源培사장(64년 商大卒)등 한국화약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증정식에서는 향후 93년도까지 총2백50억원의 도서관장서기금 출연과 관련한 도서관발전계획도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도서관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 장서의 구비나 각종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문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도서관은 2001년까지를 목표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기간동안 자료확충에 6백80억, 전산화에 1백25억여원의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고 있다.

도서관은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현재 美國 대학의 50위 수준인 캘리포니아 Davis대학수준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현재 모교 도서관은 도서관의 능력을 표시하는 ARL지수가 13·71로 미국의 104위인 Rice대학의 11·5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놓여있다.

한편 현재 모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수는 1백40만권, 학술지는 6천여종으로 미국 Havard대학의 1천1백만권, 10만여종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에 의하면 오는 97년까지 도서확충 소요예산액 3백57억원중 국고지원과 한국화약출연금 2백50억(90년 80억·91년 70억·92년 50억·93년 50억)원의 기금과 실액을 합해도 약 1백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지원이 없는 한 이러한 계획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세계수준의 대학을 지향하는 모교의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할도서관자료의 전산화도 단순히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올 소요분 8억8천만원조차 전액 삭감될 정도로 계획 초기부터 어려움에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병행해 도서관발전계획 수행에 커다란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요구되는 만큼 동문들의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韓電, 발전기금 10億 쾌척

自動化시스템분야 기초연구에 사용

한국전력(사장 安秉華)은 모교 58년 文理大卒)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출연했다.

출연금은 국내 생산품 랜트 자동차·자동제어분야 기초연구와 개발기술 응용을 위한 기금으로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과실금으로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소장:工大 高明三교수)의 운영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金仁中동문 千萬원

현재 大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金仁中(60년 法大卒) 동문이 모교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희사, 딸이름 (영아·대학원재학중)을 딴 「我장학금」으로 명명됐다.

한편 金동문의 자제 지홍군은 이번 모교 입시에서 法大를 지망해 人文계열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大學生 國外연수

蘇聯·東歐등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주관하는 90년도 동계대학생 국외연수가 중국과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서 실시된다.

국제 개방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양성과 공산권 국가에 대한 실상체험의 기회를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이번 대학생연수는, 1월7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일원에서 8박9일 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는소련및 동구에서 11박12일 일정으로 실시된다. 연수원은 각각 교직원 3명, 학생 25명이다.

禮音서 音樂堂 기증

工事費 15억…92년말 完工 예정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이사장인 崔元榮(83년大學院卒) 동문이 모교에음악당을 기증하기로 했다.

평소 모교 음악교육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崔동문은 모교 趙完圭총장 및 李南珠음대학장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기부예정건물은 총규모 2천9백19㎡(8백83평), 좌석 3백16석(1층 2백36석, 2층 80석)이며, 공사비는 1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알려졌다.

음악대학은 그동안 전용 음악당이 없어 문화관 소극장을 타대학과공동으로 사용해 왔었다. 이번에 기증되는 음악당이 92년말경 완공되면음대의 각종 행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관 소강당을다른 용도로 활용할 기회가 많아져 학내 문화활동의 진작에도 기여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음악당 건립 위치는음대 후면과 순환도로 사이로 결정되었다.

海外修學기회 넓어진다

外國대학과 學點 상호 인정制 마련

「외국대학과의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안)」이 지난 1월17일 학장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돼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모교생들이 해외수학의 기회와 견문을 통해 외국대학의 학문풍토와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갖기 위한 취지하에 마련됐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자격은 이수학기 성적 평점평균 2·7(대학원 3·3)이상. ▲허용대학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으로하고, 그 밖의 대학은 전공별 해당대학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결정. ▲유학희망시기 6개월 이전에 학과장에게 지원서류 제출. ▲학과장·대학(원)학사위원회·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최종선발. ▲수학기간은 1년이내며, 선발기준은 지원대학에서의 수학능력등 판별 ▲학점인정범위는 학사과정은 총30학점 이내(학기당 15학점 이내), 대학원 총 12학점이내로한다.

한편 현재 모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시드니대학(오스트레일리아)·부다페스트공과대학(헝가리)·UCLA(미국)·레닌그라드한림원(소련)·스톡홀름대학(스웨덴)·동경대학(일본)이다.

科學財團

우수硏究센터에 7개機關 선정돼

한국과학재단에서 선정 지원하는 91년도 우수연구센터에 모교의 7개기관이 선정되었다.

전국에서 1백25개 기관이 신청, 총 17개 기관이 선정되어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모교의 기관은 ▲수학분야:대역해석학연구센터(김종식 자연대교수) ▲생물분야:세포분화연구센터(한두봉 자연대교수) ▲기계·에너지분야: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권욱현 공대교수) ▲기계·에너지분야:터보 동력기계연구센터(노승탁 공대교수) ▲의·약학:신의학품개발연구센터(정원근 약대교수) ▲의·약학:암연구센터(장우현 의대교수) ▲농수산분야: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박관하 농대교수)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3개 기관이 우수연구센터로선정된바 있다.

연구기자재 증여

現代自動車서

현대자동차㈜의 金聖元사장은 지난 1월22일 趙完圭총장을 방문해 공대 기계공학과에서 이용할실험用 엔진모캅(1천만원상당)을 기증했다.

한편 趙총장은 그간모교에 연구비, 실험기자재, 업무용 차량 기증등 모교의 발전에 힘써준 金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